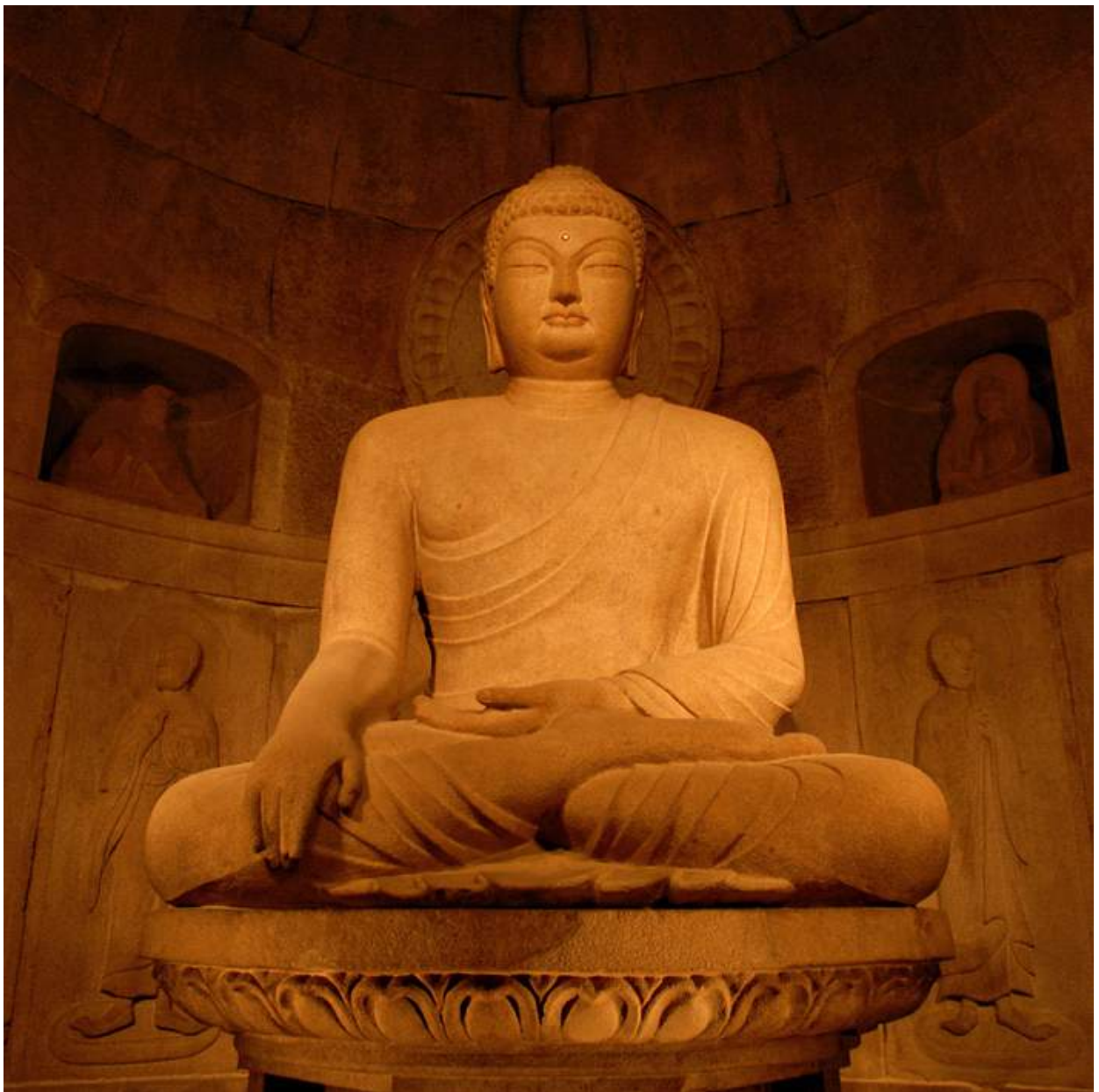


불교에 관한
유익한 질문 유익한 대답
(GOOD QUESTION GOOD ANSWER)
By S. Dhammika



GOOD QUESTION GOOD ANSWER

ISBN 978-981-08-3687-0

누구든지 허락 없이 이 책의 일부나 전부를 자유롭게 번역, 출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판 계획을 알려주고 출판 할 경우 우리에게 5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ublished by

Buddha Dhamma Mandala Society

567A Balestier Rd, Singapore 329884

| 서문

이 책은 붓다 담마 만달라 소사이어티(Buddha Dhamma Mandala Society)에서 출판한 Good Question Good Answer의 18번째 영어본입니다. 본회에서는 지금까지 오만 팔천 부를 출판했고, 다른 개인과 단체가 이만 사천 부를 더 출판했습니다. 또 새 라오어, 독일어, 힌디어 번역본을 받아 출판을 준비 중입니다. 이 작은 책이 더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알려지길 기대합니다.

Singapore August 2009

Bhante S. Dhammika

| 목차

1. 불교란 무엇인가?
2. 불교의 기본 교리
3. 불교와 유신론
4. 오계
5. 윤회
6. 명상
7. 지혜와 자비
8. 채식주의
9. 행운과 운명
10. 비구와 비구니
11. 불교 경전들
12. 역사와 발전
13. 불자가 된다는 것
14. 부처님 말씀

1. 불교란 무엇인가?

Q: 불교란 무엇인가?

A: 불교(Buddhism)란 이름은 ‘깨달음’을 뜻하는 부디(budhi)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불교란 깨달음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철학은 35세에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붓다(Buddha, 부처님)로 알려진 고타마 싯닷타(Gotama Siddhatta)의 경험 속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약 2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불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략 삼억 팔천 만 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 까지만 해도 불교는 주로 아시아 사람들의 철학이었지만 유럽과 호주, 아메리카 대륙에서 점차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Q: 불교는 단지 철학일 뿐인가?

A: 철학(philosophy)이라는 말은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philos)와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sophia)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 혹은 사랑과 지혜를 뜻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 모두 불교를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최대한 우리의 지적 능력을 계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존재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사랑(love)과 친절(kindness)을 계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교는 하나의 철학이지만 단지 하나의 철학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불교는 최상의 철학입니다.

Q: 부처님은 누구인가?

A: 기원전 563년 경 북인도의 왕가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유함과 호화로움 속에서 자랐지만 결국 세속적인 편안함과 안정은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도처에서 보았던 고통에 깊이 자극을 받은 그는 인류의 행복을 위한 단서를 발견하리라 다짐했습니다. 29살 되던 해에 그는 부인과 자식을 뒤로 한 채 당대 최고의 종교지도자의 제자가 되어 가르침을 받기위해 성을 떠났습니다. 스승들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아무도 인간이 겪는 고통의 원인과 그 고통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못했습니다. 스승을 떠난 후 6년간의 탐구와 고행, 명상 끝에 마침내 모든 무지가 사라지고 돌연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날 이후로 그는 부처님, 즉 깨달은 분이라 불리어졌습니다. 그는 북인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그가 발견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45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의 자비와 인내는 전설적이었고, 수 천 명의 추종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다. 그의 나이 80세, 늙고 병들었지만 여전히 품위 있고 평온한 모습으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Q: 심오한 깨달음을 얻은 후에 부처님이라고 불렸다면, 그 전에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

A: 부처님의 성 혹은 종족 이름은 당시 부와 명예의 대상이었던 소를 의미하는 고타마(Gotama, 최상의 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왕이 그의 아들에게 주곤 했던 이름의 하나로 '목적은 이름'이라는 뜻을 가진 싯닷타(Siddhattha)입니다.

Q: 부처님이 그의 부인과 자식을 저버린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A: 부처님에게도 가족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족을 떠나기 전에 오랫동안 고민하고 망설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서는 그의 가족을 위해 헌신 하는 것과 세상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것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의 위대한 자비심은 그 자신을 온 세상에 내놓도록 만들었고, 세상은 그의 희생으로 인해 이로움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지금까지 있었던 희생 가운데 가장 고귀한 희생일 것입니다.

Q: 만약 부처님이 돌아가신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가?

A: 전기를 발견한 페러데이(Faraday)는 죽었지만 그가 발견한 전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수많은 질병의 치료법을 발견한 파스퇴르(Pasteur) 역시 죽었지만 그의 의학적 발견은 여전히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예술 작품을 남긴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도 죽었지만 그의 작품은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기쁨을 줍니다. 역사 속에 많은 영웅들이 있었고 그들 역시 죽었지만 그들의 행적과 업적을 읽을 때면 우리는 여전히 고무됨을 느낍니다. 그렇듯이, 부처님께서 가신 지 이천 오백년이 지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 준 본보기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부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열반에 드신 후에도 수 세기에 걸쳐 이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Q: 부처님은 신인가?

A: 부처님은 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자신이 신이라거나, 신의 자식이라거나, 신의 사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완성한 인간이었고, 만일 우리가 그의 본보기를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 자신도 또한 완전해 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Q: 부처님이 신이 아니라면 왜 사람들은 그에게 예배를 올리는가?

A: 예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에게 예배드릴 때 그들은 신이 그들의 찬양을 듣고 공물을 받아들이고 기도에 답해 줄 것이라 믿으면서, 신을 찬양하고 공물을 헌납하고 청을 올립니다. 불자들은 그런 종류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종류의 예배로, 우리가 공경하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존경심을 보일 때를 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실 때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서고, 고귀한 사람들을 만날 때 악수를 하고, 애국가가 연주될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존경과 예배의 행위들이고, 특별한 사람들과 사물들에 대한 우리의 공경심을 나타냅니다. 불자들이 올리는 예배는 이런 종류의 것입니다.

가부좌한 무릎 위에 편안히 두 손을 내려놓은 부처님의 모습, 그리고 그분의 자비로운 미소는 우리에게 우리 내면의 평화와 사랑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올리는 향의 향기는 덕성을 널리 퍼뜨릴 것을, 등불은 지식의 빛을, 곧 시들어 사라지는 꽃들은 우리에게 무상을 상기시켜 줍니다. 절을 할 때 우리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자들이 올리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Q: 하지만 사람들은 불교 신자들이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A: 그런 말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반영하는 것 뿐입니다. 사전에서는 우상을 '이미지나 상을 신으로서 숭상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불자들은 부처님도 신이라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무나 철 조각으로 만들어진 상을 신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종교는 그들의 다양한 믿음을 나타내는 상징을 사용합니다.

도교에서 음양도는 양극 사이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시크교에서 검은 정신적 투쟁을 상징하고, 기독교에서 물고기는 예수의 실재를, 십자가는 그의 희생을 나타냅니다. 불교에서 불상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인간적인 측면을 상기 시켜 줍니다. 사실 불교는 신 중심이라기보다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완전함과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밖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자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은 기독교인이 물고기나 기하학적 문양을 숭배한다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입니다.

Q: 그렇다면 사람들이 절에서 하는 온갖 이상한 행동은 무엇인가?

A: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많은 것들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상하다고 멀리하기보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자들이 하는 어떤 행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기원 한다기보다 대중적 미신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릇된 이해는 불교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모든 종교에 잠입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가르침을 펴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 가르침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부처님의 뜻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불교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가까운 곳에 의사가 있어도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사의 잘못이 아니다. 이와 같이 만일 어떤 사람이 번뇌의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고통 받으면서도 부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잘못이 아니다.’
(본생담 주석서, Jn.28-9)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로 그 가르침을 올바르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해 판단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알고 싶다면 그분의 말씀을 읽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바랍니다.

Q: 기독교의 성탄절에 해당하는 불교 기념일이 있는가?

A: 남방 불교의 전통에 따르면, 왕자 싯닷타는 인도력의 두 번째 달, 서양력으로는 4월-5월에 해당하는 웨삭(Vesakha, 음력 4월 보름날)에 태어나셨고, 깨달은 자가 되셨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날 전 세계의 불자들은 절을 방문하거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거나 혹은 명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으로 이러한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Q: 불교가 그렇게 유익한 것이라면 왜 몇몇 불교 국가들은 가난한가?

A: 만일 가난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가난만을 의미한다면 몇몇 불교 국가들이 가난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가난을 말한다면 아마도 그런 불교 국가들은 꽤나 부유할 것입니다. 미국을 예로 들자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강대국이지만 범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자녀들의 방치 속에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요양소에서 쓸쓸하게 죽어가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약물 중독은 큰 문젯거리들입니다. 그리고 세 쌍의 부부 중에서 한 쌍이 이혼으로 끝을 맺습니다. 돈이라

는 측면에서는 부유할지 몰라도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마도 가난하다고 하겠 습니다. 이제 몇몇 전통적인 불교 국가들을 살펴보면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존경과 대우를 받습니다. 범죄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고, 이혼이 나 자살 역시 드뭅니다. 또한 친절과 관대함, 낯선 이에 대한 호의, 관용, 타인에 대 한 존중과 같은 전통적 가치들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낙후 했지만 삶의 질은 미국 같은 나라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살펴본다고 해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역동적인 경제 대국 중 하나인 일본에서 꽤 높은 비율의 인구가 스스로를 불자라 칭하고 있습니다.

Q: 왜 불자들이 행하는 자선 사업에 관해서는 잘 들을 수 없는가?

A: 아마도 그것은, 불자들은 그들이 행하는 선행에 대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몇 년 전 일본 불교 지도자인 닛쿄 니와노(Nikkyo Nirwano)는 종교간 화합을 증진시킨데 대한 업적으로 템플턴상(Templeton Prize)을 수상했습니다. 한 태국 승려는 최근 약물 중독자들에 대한 그의 탁월한 공로로 막사이사이상(Magsaysay Prize)을 받았습니다. 1987년에는 또 다른 태국 승려인 칸타야삐왓(Kantayapiwat) 스님이 여러 해 동안 시골 지역의 집 없는 아이들을 돌봐 온 공로 로 노르웨이 아동 평화상(Norwegian Children's Peace Prize)을 수상했습니다. 그 리고 서구의 불자 조직이 인도의 빈민들을 위해 거대한 규모의 사회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학교, 탁아소, 무료 진료소, 자급자족을 위 한 소규모 공장 등을 세웠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자들 역시 다른 이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종교적 실천의 한 방법으로 봅니다. 다만 불자들은 그런 선행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Q: 왜 그렇게 많은 다른 형태의 불교가 있는가?

A: 세상에는 황설탕, 백설탕, 덩어리 설탕, 가루 설탕, 시럽 등 다양한 형태의 설탕 이 있지만 그건 모두 설탕이고 단 맛이 납니다. 설탕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불교도 이와 같습니다. 남방 상좌부 불교, 선 불교, 정토 불교, 유식 불교, 금강승 불교 등 다양한 형태의 불교가 있지만 그것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또 자유라는 한 가지 맛으로 모두 같은 것입니다. 불교 는 그것이 존재하는 여러 문화에 적합하도록 서로 다른 형태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재해석되는 과정을 거치며 불교는 새로운 세대에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불교의 형태가 매우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다양한 형태의 모든 불교의 중심에는 사성제와 팔정도가 있습니다.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부파와 종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불교와 몇몇 다른 종교 사이의 차이점은 불교내의 다양한 부파들은 일반적으로 서로에게 매우 관대하고 우호적이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Q: 분명 불교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불교만이 유일한 참된 종교이고 다른 종교는 다 그릇되었다는 말인가?

A: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불자라면 누구도 다른 종교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알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진실한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될 점은 바로 종교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공통점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류의 현재 상태가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인류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랑이나 친절, 인내, 관용, 사회적 책임 등을 포함한 윤리를 가르치고, 어떤 형태의 절대적 존재를 인정합니다. 이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비록 다른 언어와 이름, 상징들을 사용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오직 사람들이 좁은 마음으로 자신들의 특별한 방식에만 집착해서 사물을 보려고 할 때 편협함과 자만, 독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국인, 프랑스인, 중국인, 인도네시아인이 함께 컵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영국인이 ‘그것은 컵(cup)이야’라고 말하면 프랑스인은 ‘아니야, 그것은 따스(tasse)야’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인이 ‘둘 다 틀렸어, 그것은 베이(bei, 盃)야’라고 말하면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인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웃으면서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 그건 차완(cawan)이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국인은 사전을 들고 와서 보여 주며 ‘나는 그것이 컵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내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하고 말합니다. 그 때 프랑스인은 ‘그럼 네 사전이 틀린 거야. 왜냐하면 내 사전엔 분명히 그것이 따스라고 말하고 있거든.’ 중국인은 비웃으며 ‘내 사전엔 베이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내 사전은 너희들 것보다 몇 천 년 더 오래된 거야. 그러니 이게 맞을 거야.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 말보다 중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거든. 그러니 베이가 틀림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와서 컵에 든 것을 마시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걸 컵이라 부르건, 따스나 베이 혹은 차완이라고 부르건 간에 컵의 용도는 마실 물을 담는 것이다. 이제 그만 따지고 마셔라. 시시한 다툼을 그치고 너의 갈증을 해소해라’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를 대하는 불자의 자세입니다.

Q: 어떤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사실은 같다고 말하는데, 그 말에 동의하는가?

A: 종교는 그런 간단하고 짧은 말로 요약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불자라면 이러한 말이 옳은 면과 그른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말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이 있다고 가르치지만 불교는 신은 없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순수하게 정화하는 모든 사람에게 깨달음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의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팽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 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 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고린도 전서 13장 1~7, 대한성서공회 번역)

이것이 정확히 불교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초능력,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 믿음의 견고함이나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엄청난 행동보다 우리 마음의 품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신학의 개념이나 이론으로 접근할 때 불교와 기독교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마음의 품성이나 윤리 혹은 행동의 측면에서 다가설 때 그들은 매우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불교와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도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불교는 과학적인가?

A: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과학’이라는 말을 정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전에 따르면 과학은 ‘사실을 검증하고 일반적인 자연법칙을 진술하는 것을 통해 체계화된 지식으로 이런 종류의 지식은 정확하게 연구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어떤 측면들은 이런 정의에 딱 들어맞지 않지만, 불교의 가장 핵심 교리인 사성제는 확실히 과학적입니다. 첫 번째 고귀한 진리인 고통(Suffering)은 정의될 수 있

고, 체험될 수 있고, 측정될 수 있는 경험입니다. 두 번째 고귀한 진리는 고가 자연적인 원인 즉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의하고, 체험하고, 측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이상학적 개념이나 신화에 의지해 고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고귀한 진리에 따르면 고는 끝이 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에 의지하거나 믿음 또는 기도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네 번째 고귀한 진리인 고통을 끝내는 길 역시 형이상학과 관련된 것이 전혀 없이 구체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의지하며, 이 행동 또한 언제라도 검증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불교는 과학이 그러한 것처럼 초월적 존재의 개념 없이 자연법칙에 의해서 생명의 기원과 우주의 작용을 설명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분명하게 과학적인 정신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믿기보다 질문하고, 검사하고, 조사하고, 우리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야 한다는 부처님의 끊임없는 충고는 확실한 과학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깔라마 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은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고 해서, 우리의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추측이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추론에 의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은 참으로 스스로가 “이러한 법들은 유익한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비난받지 않을 것이며, 이런 법들은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법들을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이익과 행복이 있게 된다.”라고 알게 되면, 그것들을 구족하여 머물러라.’ (앙굿따라 니까야, A3:65.깔라마경)

불교가 완전히 과학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강한 과학적 함축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어떤 종교보다 과학적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가 낳은 위대한 과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이 불교에 대해 말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인 종교가 될 것이다. 그것은 특정한 신의 존재를 초월하며, 독단적인 교리나 신학 체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자연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를 모두 포함하면서, 모든 것을 경험한데서 우러나는 종교적인 감각과 함께 자연과 정신 그리고 완전한 조화에 기초를 둔 것이어야 한다. 불교가 이런 요구를 만족시키는 대답이다. 만일 현대 과학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바

로 불교가 될 것이다’

Q: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도(The middle way)’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A: 부처님은 팔정도(The Noble Eightfold Path), 다른 이름으로 중도라는 의미를 가진 맞지마 빠디빠다(majjhima patipada)를 표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단지 어떤 길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특정한 방법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규율과 수행에 대해서 매우 완고해 질 수 있고, 결국에는 진짜 광신도가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규율과 수행에 있어 과도함과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피하고, 균형 있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따르고 수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모든 일에서의 중용’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불자들 역시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Q: 불교는 단지 힌두교의 한 형태라고 읽었는데 사실인가?

A: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와 힌두교는 많은 윤리적 사상들을 공유하고, 카르마(karma, 업), 사마디(samadhi, 선정), 니르바나(nirvana, 열반)와 같은 공통된 용어들을 사용하며, 모두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입니다. 이런 점은 몇몇 사람들이 두 종교가 같거나 혹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유사성을 넘어서 바라보면 이 두 종교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힌두교는 초월적 존재인 신을 믿지만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힌두교의 사회철학에서 중요한 가르침 중의 하나가 카스트라는 신분제도인데 불교에서는 이런 신분제도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종교적 의식을 통한 정화는 힌두교에서 가장 주된 수행법이지만 불교에는 그런 식의 수행이 들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종종 힌두교 성직자인 브라만의 가르침을 비판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브라만 역시 몇몇 부처님의 사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비판은 불교와 힌두교가 같은 것이라면 절대 일어 날 수 없을 것입니다.

Q: 하지만 업이라는 사상은 힌두교에서 모방한 것이 아닌가?

A: 힌두교에서도 업과 윤회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르침은 불교의 가르침과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힌두교는 업에 의해 우리가 결정된다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우리의 업은 오직 우리의 조건이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영원불멸하는 영혼 혹은 자아가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옮겨 간다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런 영혼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

는 정신적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들이 업과 윤회에 관한 두 종교 사이의 많은 차이점 중 몇 가지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불교와 힌두교의 가르침이 같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부처님께서 생각 없이 다른 종교의 사상을 모방한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정확히 같은 발견을 하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로 진화론을 들 수 있습니다. 1858년 찰스 다윈이 그의 유명한 책 '종의 기원'을 출판하기 직전에 그는 알프레드 러셀 월레스라는 사람이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똑같이 진화에 대한 사상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윈과 월레스는 서로의 생각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같은 현상을 두고 연구함으로써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설사 업과 윤회에 대한 불교와 힌두교의 생각이 같더라도, 실제 그것은 같지 않지만, 이것이 반드시 모방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명상으로 계발된 통찰력을 통해서 힌두교 성자들은 업과 윤회에 대해 막연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훗날 부처님이 좀 더 완전하고 정확하게 설명해내신 것입니다.

2. 불교의 기본 교리

Q: 부처님의 주요 가르침은 무엇인가?

A: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그 중심에 사성제, 즉 네 가지 고귀한 진리가 있는데 이것은 마치 수레바퀴의 테와 바퀴살이 바퀴 축을 그 중심으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성제의 사(四, four)는 그 내용이 네 가지이기 때문이고, 성(聖, noble)은 그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을 고귀하게 하기 때문이며, 제(諦, truth)는 실재에 부합하여 그 내용이 진실 되기 때문입니다.

Q: 사성제 가운데 첫 번째 고귀한 진리는 무엇인가?

A: 첫 번째 고귀한 진리는 삶은 고(苦)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 자체가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종류의 고통이나 걱정도 경험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우리는 질병, 상해, 피로, 노쇠함,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하며 외로움과 좌절, 공포, 당혹감, 실망, 화와 같은 정신적 고통도 겪어야 합니다.

Q: 이것은 다소 비관적인 것이 아닌가?

A: 사전에서는 비관주의를 ‘무엇이 일어나건 간에 나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버릇’ 혹은 ‘악이 선보다 더욱 강력하다는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불교는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행복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삶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진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할 뿐입니다. 불교는 경험, 반박할 수 없는 사실, 모두가 아는 것, 모두가 경험해 왔던 일들, 그리고 모두가 피할 수 없기를 갈망해 왔던 일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모든 인류 개개인의 관심사-고통과 그것을 피하는 방법-의 핵심을 곧장 꿰고 들어감으로써 시작하는 것입니다.

Q: 사성제의 두 번째는 무엇인가?

A: 두 번째 고귀한 진리는 갈애가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적 고통이 갈애에서 생겨났다는 것을 알기는 쉽습니다. 무언가를 원하지만 얻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낙담하고 화를 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 주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원하는 어떤 것을 가질 수 있다 해도 늘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루하다고 느끼거나 흥미를 잃거나 다른 것을 원할 때 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성제의 두 번째 고귀한 진리는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치기 보다는 차라리 욕망하는 행위 자체를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우리에게서 만족과 행복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Q: 욕망과 갈애가 어떻게 육체적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인가?

A: 이런 저런 것을 원하고 갈구하는 일생, 특히 계속해서 존재하려는 갈애는 개개인으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몸을 갖게 되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몸은 다치거나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 이 몸은 일에 지쳐 녹초가 될 수도 있고, 나이 들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이렇듯 갈애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므로 갈애가 바로 육체적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Q: 다 좋다. 하지만 만일 우리 모두가 욕구를 멈춘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얻지 못하고 어떤 일도 달성하지 못할 것 아닌가?

A: 맞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욕망과 갈망, 이미 가진 것에 대한 끊임없는 불만족, 더 가지고자 하는 계속되는 욕망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별해서, 필요한 것은 얻기 위해 노력하고 원하는 것은 줄여 나가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채워질 수 있지만 우리의 욕구는 끝이 없어서 마치 밑바닥이 없는 구멍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에 대한 필요는 노력하여 얻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필요를 넘어선 욕망은 점차 줄여나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얻거나 바라던 바를 이루면 행복해지는 것인가요?

Q: 앞에서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증거가 있는가?

A: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여기에 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 사성제의 세 번째 고귀한 진리는 무엇인가?

A: 세 번째 고귀한 진리는 고통은 극복될 수 있고 그리하여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아마도 사성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애 없이 매순간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끊임없는 욕망 대신 삶이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경험을 즐기며, 두려움이나 미움, 화내는 마음 없이 삶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참을성 있게 이겨나갈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그때에야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의 이기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도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니르바나(nirvana, 열반)라고 부릅니다.

Q: 열반이란 무엇인가?

A: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차원이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말이나 생각은 오직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묘사하는데 적합합니다. 하지만 열반은 시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운동과 마찰도 없고, 늙음과 죽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반은 영원합니다. 열반은 또한 공간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인과도 없고 한계도 없으며, 나라거나 내가 아니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반은 무한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열반은 비교할 바 없는 크나

큰 행복의 체험이라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반은 으뜸가는 행복이다.’ (법구경, Dh.p.204)

Q: 그러나 그런 차원이 존재한다는 증거라도 있는가?

A: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추론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즉 시간과 공간이 작용하는 그런 차원의 세상이 있다면, 시간과 공간이 작용하지 않는 열반과 같은 차원의 세상도 존재한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열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에게 열반이 존재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태어남도 없고, 되어감도 없고, 만들어짐도 없고, 형성됨도 없다. 만약 이러한 태어나지 않음, 되어가지 않음, 만들어지지 않음, 형성되지 않음이 없었다면 거기에는 태어남, 되어감, 만들어짐, 형성됨으로부터의 벗어남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태어나지 않음, 되어가지 않음, 만들어지지 않음, 형성되지 않음이 있기에 태어남, 되어감, 만들어짐, 그리고 형성됨으로부터의 벗어남이 있는 것이다.’ (자설경, Ud. 80)

우리가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의 여러 측면들을 여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네 번째 고귀한 진리는 무엇인가?

A: 네 번째 고귀한 진리는 고통의 극복으로 이끄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은 팔정도라 불리는데 바른 이해(正見), 바른 사유(正思惟), 바른 말(正語), 바른 행동(正業), 바른 생계수단(正命), 바른 노력(正精進), 바른 마음 챙김(正念), 바른 삼매(正定)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자들의 삶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팔정도의 수행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팔정도를 실천해 나가는 일이 삶의 모든 양상, 즉 지적,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인 부분을 아우른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팔정도의 길은 사람들을 유익한 삶으로 이끌고, 그들의 정신을 계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셈입니다.

3. 불교와 유신론

Q: 불자들은 유신론을 믿는가?

A: 불자들은 유신론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현대의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서는 많은 종교적 사상들 중에서, 특히 유신론 개념은 불안과 공포에 그 기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험과 두려움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산이나 나무숲이나 성스럽다는 수도원 따위를 찾아 그곳을 의지처로 삼으려한다’ (법구경, Dh.p.188)

원시시대의 사람들은 위험하고 적대적인 세상 속에 그들이 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야생 동물에 대한 공포와 충분한 음식을 구할 수 없는 현실, 다치거나 병에 걸릴 두려움, 그리고 천둥이나 번개, 화산과 같은 자연 현상들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무런 안전수단을 찾지 못한 채 그들은 좋은 시절에는 평안함을, 위험할 때는 용기를, 뭔가 잘못되어 갈 때에는 위안을 얻기 위해 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종교적이 되고, 신 혹은 신들에 대한 믿음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준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필요할 때 기도를 하면 응답을 얻기 때문에 특정한 신을 믿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신이라는 개념은 공포와 좌절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지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실체를 알아차리고, 우리의 욕망들을 줄여 나가고, 고요하게,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을 용기 있게 인정하도록 노력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합리한 믿음이 아니라 이성적인 이해로 공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이 유신론을 믿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그런 사상을 지지할 만한 증거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교에서 오직 그들 자신만이 성서에 간직된 신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만이 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신만이 존재하고 다른 종교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은 남성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신은 여성이라고 하며 다른 이들은 중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신은 합일체라 하고, 다른 이들은 세 가지 본성을 가진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숭배하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만족해 하지만, 다른 종교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제시한 증거들은 비난합니다. 수많은 종교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여러 세기에 걸쳐 그토록 독창성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실하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없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 사이에서도 자신들이 경배하는 신이 어떠한지에 대한 동의를 이루어 내지 못합니다. 불자들은 그런 증거가 출현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합니다.

부처님께서 신을 믿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그런 믿음이 불필요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신에 대한 믿음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신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도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매우 확실하게 설명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에 대한 믿음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에 필수적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자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신을 믿지 않고도 유익하고 행복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수백만 명의 무신론자와 자유사상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서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기 때문에 신의 권능을 믿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시 한 번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종종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요소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심각한 신체적 불구와 장애, 수많은 편견과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선 신이 꼭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오직 당신이 신학적인 구원 개념을 받아들일 때만 유효할 것입니다. 불자들은 그런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부처님께서 모든 인류가 마음을 정화하고,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계발하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부처님은 천상으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마음으로 돌렸고,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Q: 그러나 만일 신이 없다면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A: 모든 종교에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신화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그런 신화면 충분했겠지만, 물리학과 천문학, 지질학의 시대인 21세기는 과학적 사실이 그런 신화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유신론에 의지하지 않고 우주의 기원을 설명해 왔습니다.

Q: 부처님께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A: 흥미롭게도 우주의 기원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은 과학적 관점과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세기경(Aggañña Sutta)에서 부처님은, 우주는 파괴되었다가 셀 수 없는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생성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체가 수면에서 형성되었고, 다시 셀 수 없는 세월이 흐르면서 생명은

간단한 유기체로부터 복잡한 유기체로 진화해 왔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시작이나 끝도 없이 자연적 원인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Q: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는데, 기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 그것은 신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 증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이 고쳐졌다는 열광적인 외침을 듣지만 여기에 대한 병원이나 의사의 독자적인 증언은 결코 얻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 재난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소문을 전해 듣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 목격자의 증언 역시 결코 얻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기도를 통해 병든 몸이 회복되었다거나 쇠약해진 팔다리가 튼튼해졌다는 소문을 듣지만, 그런 소문을 입증할 의사나 간호사의 조언을 듣거나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하는 일은 없는 듯 보입니다. 열광적인 외침이나 전해들은 소문·풍문은 확실한 증거로 대체되지 못하고, 기적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매우 희귀합니다.

하지만 비밀상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때때로 벌어지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설명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지식이 아직 불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현대 의학이 발달하기 전, 사람들이 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을 때는 신이 벌로써 병을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인을 알고 있으므로 아플 때 약을 먹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좀 더 완전해질 그 때, 마치 지금은 우리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Q: 그렇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신을 믿고 있는 걸 보면 신의 존재는 아마도 사실이 아닐까?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던 때가 있었지만 그들 모두 틀렸습니다. 어떤 사상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그 사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사상이 진리인지 아닌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을 관찰하고 증거를 조사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Q: 어떤 사람들은 증거가 도처에 있다고 말한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 신체의 복잡함이 고도의 지성을 갖춘 자애로운 창조주의 증거라는데 대해서는?

A: 불행히도 그런 생각은 자연의 다른 측면 - 나병 세균, 암세포, 기생충, 흡혈곤

충, 전염병을 옮기는 쥐와 같은 것을 보자마자 깨질 것입니다. 왜 고도의 지성이 그런 처참함과 고통을 야기 시키는 것들을 고안해 낸단 말입니까. 그러면 잠시 멈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나 가뭄, 홍수, 쓰나미로 죽거나 다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만일 진정으로 자애로운 창조주가 있다면 그는 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도록 놔두는 것일까요?

Q: 그렇다면 불자들은 신을 믿지 않고 무엇을 믿는가?

A: 우리는 인간을 믿기 때문에 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 개개인 모두가 존귀하고 중요하며, 모두가 부처님 즉 완성된 인간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무지와 불합리에서 벗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냄과 분노, 악의와 질투 같은 것들이 사랑과 인내, 관용과 친절로 대체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고, 도반의 인도와 지지를 받으면서, 부처님을 본보기 삼아 우리의 정신을 고취시킨다면, 이 모든 일들이 개개인의 손이 미치는 곳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믿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자기야말로 자기의 의지처
어떻게 남을 자기의 의지처로 삼으랴.
자기를 잘 단련시킴으로써만
자기를 의지처로 만들 수 있는 것
이는 실로 성취하기 어렵다.’ (법구경, Dhp.160)

4. 오계

Q: 다른 종교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그들의 신 혹은 신들의 명령으로부터 도출한다. 불자는 신을 믿지 않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어떻게 아는가?

A: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 뿌리를 둔, 그래서 우리를 열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생각이나 말, 행동은 나쁜 것이고, 나눔과 사랑, 그리고 지혜에 바탕을 둔, 그래서 열반에 이르는 길을 분명하게 도울 수 있는 생각이나 말, 행동은 좋은 것입니다. 신 중심의 종교들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당신이 들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불교처럼 인간이 중심인 종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

기 위해서는, 당신은 깊이 있는 자기 인식과 스스로의 깨달음을 계발해야만 합니다.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윤리는 언제나, 명령에 응답하는 윤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불자는 세 가지 사항을 관찰 합니다: 행동 이면의 의도,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 등을 말합니다. 만일 의도가 좋고(관용, 사랑, 지혜에 뿌리를 두었다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며(더 많이 베풀고, 사랑하고, 지혜로워 지는데 도움이 된다면), 다른 이도 돕는다면 (그들이 좀 더 나누고, 더 많이 사랑하고, 지혜로워지도록 돕는다면), 그 때 나의 행위와 행동들은 건전하고 유익하며 도덕적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행동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좋은 의도로 행동했지만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의도는 선의와 거리가 멀었지만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때때로 좋은 의도로 행동한 것이 내게만 도움이 될 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나의 행동은 좋은 것과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의도가 나쁘고 그 행동이 나에게도 남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런 행동은 나쁜 것입니다. 의도가 좋고 그 행동이 나에게나 타인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 그때 그 행동은 전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Q: 그렇다면 불교에도 도덕에 관한 규범이 있는가?

A: 물론입니다. 오계(五戒)가 불교 도덕의 근본입니다. 첫 번째 계율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해치거나 죽이지 말라. 두 번째는 훔치지 말라. 세 번째는 샷된 음행을 삼가라. 네 번째는 거짓말 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술이나 중독성 있는 약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Q: 하지만 때로는 질병을 퍼뜨리는 해충이나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죽이는 것이 맞을 때도 있지 않은가?

A: 아마도 그건 당신에겐 좋을 수도 있지만, 죽임을 당하는 곤충이나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겠습니까? 그들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질병을 옮기는 곤충을 죽이기로 결심했을 때, 당신의 의도는 아마도 자기 염려(좋은 쪽)와 혐오(나쁜 쪽)가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 행동은 스스로에게는 이익이 될지라도 아무리 봐도 그 생명체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라도 그 행위가 전적으로 잘한 일은 아닙니다.

Q: 불자들은 개미나 벌레들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 아닌가?

A: 불자들은 차별 없고 포괄적인 자비심을 계발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각각의 사물과 생명체가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 조화로운 전체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연의 정교한 균형을 파괴하거나 뒤엎어 버리기 전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연을 완벽하게 착취하고, 어떤 것도 남겨 두지 않은 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며,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곳에서 자연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공기는 독성을 지니게 되었고 강은 오염되거나 죽어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 식물들이 멸종에 이르고 있으며, 산비탈은 불모지가 되거나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후도 변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부수고, 파괴하고, 죽이는 일에 조금만 덜 열정적이었어도 이런 끔찍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를 좀 더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율에 관한 것입니다.

Q: 불교는 낙태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A: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생명은 수태했을 때나 혹은 바로 그 직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일입니다.

Q: 하지만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아이가 기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임신 중절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A: 강간의 결과로 생긴 아이도 다른 어떤 아이들만큼 사랑 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그들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간단히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기형이나 정신 지체아를 낳는 것이 부모에게 끔찍한 충격이 되겠지만, 이런 태아를 낙태하는 것이 괜찮다면 기형이거나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과 어른들은 왜 죽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물론, 낙태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가장 인도적인 대안이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대부분의 낙태는 단지 임신이 불편하거나 당황스럽기 때문에 혹은 부모가 좀 더 나중에 아이를 갖기 원하기 때문에 간단히 이뤄집니다. 불자들에게 이런 이유는 한 생명을 파괴하기엔 너무나 빈약해 보입니다.

Q: 만약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한다면 그들도 첫 번째 계율을 어기는 것이 되는가?

A: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할 때 그들은 두려움, 화, 분노, 탐욕 또는 그 밖의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 그런 행위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그들은 매우 흡사한 이유들 때문에, 혹은 실망과 좌절감 같은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자살을 할지도 모릅니다. 살인이 타인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

의 결과라면, 자살은 자기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살은 계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나 시도해 본 적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려던 일이 틀렸다고 질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보살핌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살을 하는 것은 문제를 영속시키고 그 문제에 굴복하는 것이지 결코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Q: 두 번째 계율은 무엇인가?

A: 우리가 이 계율을 받아 지닐 때 우리는 내게 속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취하지 않을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는 탐욕을 억제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Q: 세 번째 계율은 샷된 음행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무엇이 샷된 음행인가?

A: 만약 우리가 다른 이에게 역지로 성행위를 강요하기 위해 속임수나 감정적인 거짓말, 혹은 폭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샷된 음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배우자에게 충실하기로 약속하기 때문에 간통 또한 샷된 음행의 한 형태입니다. 간통을 저질렀을 때 그것은 서로에 대한 약속을 깨고 상대에 대한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 됩니다. 성행위는 두 사람 사이의 사랑과 친밀함의 표현이 되어야 하고 그러할 때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인 행복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Q: 결혼 전의 성행위도 샷된 음행의 한 형태인가?

A: 만일 관계된 두 사람 사이에 사랑과 합의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행위의 생물학적 기능이 재생산에 있고, 만일 미혼의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하고 사려 깊은 사람들은 결혼할 때까지 성행위를 미뤄 두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Q: 불교는 산아 제한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A: 어떤 종교에서는 출산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성행위를 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형태의 산아 제한이 잘못이라 여깁니다. 불교는 성행위가 여러 가지 목적 - 출산, 즐거움, 두 사람간의 사랑과 애정의 표현 등-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낙태를 제외한 어떤 형태의 산아 제한도 괜찮다고 봅니다. 사실 불교에서는 인구 폭발이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세상에서 산아 제한은 진정 고마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Q: 네 번째 계율은 어떤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한가?

A: 만일 거짓말 없이 사회에서 살아가거나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런 충격적이고 부패한 상황은 바뀌어야 합니다. 불자들은 좀 더 진실하고 정직해지려고 노력함으로써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실제적인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Q: 만일 당신이 공원에 앉아 있는데 겁에 질린 사람이 당신 앞을 지나갔고, 몇 분 후에 칼을 든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뛰어 와서 첫 번째 사람이 간 곳을 묻는다면, 당신은 진실을 말할 것인가? 거짓을 말할 것인가?

A: 만일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추정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현명한 불자로서 나는 거짓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행동이 유익한지 나쁜지를 결정하는 요소들 중 하나가 의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생명을 구하려는 의도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보다 몇 배나 더 긍정적입니다. 만약 거짓말을 하고 술을 마시고 심지어 도둑질을 하는 것이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율을 어기는 것은 항상 개선해 나갈 수 있지만, 한 번 죽은 사람의 목숨은 결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에 말했듯이 이것을 편리할 때마다 계율을 깨트리는 허가서쯤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바랍니다. 계율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지켜야 하며 오직 극단적인 경우에만 범할 수 있습니다.

Q: 다섯 번째 계는 술을 마시거나 다른 약물을 취하지 말라는 것인데 왜 그러면 안 되는가?

A: 사람들은 보통 맛으로 술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은 긴장을 풀기 위해서이고,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대개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은 양의 술이라도 의식을 왜곡시키고 자기 인식을 무너뜨립니다. 많은 양을 마시면 그 영향력은 파괴적일 것입니다. 불자들은 당신이 다섯 번째 계율을 어길 때 나머지 다른 계율도 모두 깨트리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Q: 그러나 단지 적은 양을 마시는 것이 정말로 계율을 어기는 것인가? 그것은 단지 작은 일일 뿐 아닌가?

A: 그렇습니다. 단지 작은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그런 작은 일도 실천

할 수 없다면, 당신의 약속이나 결심은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Q: 흡연이 다섯 번째 계를 범하는 것인가?

A: 흡연이 신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약합니다. 사람들은 흡연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깨어 있고, 마음을 챙기고, 침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은 권할만한 일은 아니지만 계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다섯 가지 계율은 부정적이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만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말해주지 않는데?

A: 오계는 불교 도덕의 기본입니다. 불교 도덕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행동을 알아차리는데서 출발해서 그것을 멈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오계의 목적입니다. 그릇된 행동을 멈춘 후에야 우리는 착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계율을 예로 들어보면, 부처님께서서는 거짓말을 삼가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진실을 말하고, 상냥하고 공손하며 적절한 때에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멀리 여의고, 진실을 말하며 진실에 부합하고 굳건하고 믿음직하여 세상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는 중상 모략하는 말을 버리고 중상 모략하는 말을 멀리 여의고, 여기서 듣고 이들을 이간하려고 저기서 말하지 않고 저기서 듣고 저들을 이간하려고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와 같이 이간된 자들을 합치고 우정을 장려하며 화합을 좋아하고 화합을 기뻐하고 화합을 즐기며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는 욕설을 버리고 욕설을 멀리 여의고, 유순하고 귀에 즐겁고 사랑스럽고 가슴에 와 닿고 예의 바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는 잡담을 버리고 잡담을 멀리 여의고, 적절한 시기에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법을 말하고, 율을 말하며, 가슴에 담아둘 만한 말을 하고, 이치에 맞고, 절제가 있으며, 유익한 말을 적절한 시기에 합니다.’ (맛지마 니까야, M:27.코끼리 발자국의 비유 경)

5. 윤회

Q: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A: 이 질문에는 세 가지 가능한 대답이 있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은 보통 개개인이 창조되기 전에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후에 신의 의지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삶을 살고난 후 그들이 믿었던 것, 혹은 살아있는 동안 했던 일에 따라 영원한 천당이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인본주의자나 과학자들은 개개인은 자연적 원인에 의해 수정란에서 탄생하게 되었고, 삶을 산 후 죽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불교는 이 두 가지 설명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많은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만약 선한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독한 불구로 태어나는지, 또 왜 그렇게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유산되거나 사산아가 되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유신론적 설명의 또 다른 문제점은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고작 60, 70년 동안 했던 일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불공평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앙심이 없거나 비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의 60, 70년이 영원한 고문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60, 70년의 덕스러운 삶을 산 사람도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기에는 매우 적은 양의 비용이 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주장의 설명은 첫 번째 주장보다는 낮고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좀 더 많은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답해지지 않은 중요한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의식과 같은 놀라우리만치 복잡한 현상이 정자와 난자의 단순한 만남으로 단지 9개월 만에 전개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초심리학이 과학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는 지금, 텔레파시와 같은 현상들은 점점 더 마음의 유물론적 모델에 끼워 맞추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가장 만족스런 설명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모든 버릇들, 좋아하는 것들, 능력들 그리고 이번 생에서 습관지어지고 계발되었던 특성들과 함께 마음이 수정란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태어난 후 지난 생으로부터 옮겨 온 정신적 특성과 새로운 환경,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 하나의 인격체로 발전해 나갑니다. 이러한 인격체는 변화할 수 있으며, 의식적인 노력과 교육, 부모의 영향과 소속 집단과 같은 조건 지워진 요소들에 의해 변경될 것이며, 또 한 번 죽어서는 새로운 수정란 안에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이런 과정은 그 원인이 되는 욕망과 무지가 그칠 때 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과 무지를 끊어낼 때 마음은 다시 태어나는 대신 니르바나라고 불리는 열반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삶의 목적입니다.

Q: 어떻게 마음이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 옮겨 가는가?

A: 마음을 라디오 전파와 같은 것으로 생각해 봅시다. 라디오 전파는 말이나 음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주파수의 에너지가 전달되고, 공간을 통해 이동하고, 수신기에 의해 끌어 당겨지고 선정돼서 말이나 음악으로 방송됩니다.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임종 시에 정신적 에너지는 공간을 통해 이동해서 수정란에 의해 끌어 당겨지고 선정됩니다. 태아가 자람에 따라 정신적 에너지는 새로운 인격체로서 스스로를 '방송'하게 되는 뇌 안에 중심을 잡습니다.

Q: 어떤 사람이 다시 태어날 때 영혼이나 자아가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 이동하는 것 아닌가?

A: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부처님께서서는 영원한 영혼이나 자아에 대한 믿음은 에고(ego)에 의해 그리고 좀 더 에고를 장려하려는 데서 만들어진 망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자아는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에고이즘, 나르시즘, 자만과 자기중심 주의는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개개인은 고행의 바위가 아니라 흐르는 물줄기입니다.

Q: 그 말은 모순처럼 들린다. 만약 자아가 없다면 동일성도 없어야 할 것이고, 동일성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A: 그것은 마치 95년 동안 지속되어 온 축구팀과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백 명의 선수들이 팀에 합류했고, 5년 또는 10년간 뛰고 팀을 떠나면 다른 선수로 대체되었습니다. 팀에 원년 멤버는 한 명도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살아 있지 않다고 해도 '그 팀'이 있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계속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동일성은 인식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단단한, 고행의 실재물인데 그렇다면 무엇이 팀의 동일성을 구성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팀의 이름, 과거의 업적에 대한 기억, 선수들과 팬들이 팀에 대해 가지는 감정, 단결심 등입니다. 개개인도 이와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죽었던 사람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떤 변하지 않는 자아가 이 몸에서 다음 몸으로 건너가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성이 기억, 성향, 정신적 습관, 심리적 경향들 속에 존속되기 때문입니다.

Q: 만일 우리 모두 전생이 있다면 어째서 과거의 삶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A: 어떤 사람들은 최소한 아주 어린 시절 동안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분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태어나기 전 자궁 속에 있는 9개월 동안 전부 혹은 대부분의 기억이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는 아마도 9개월 동안 거의 완전히 감각이 박탈되었다가, 태어날 때 입력되는 새로운 감각의 충격이 이전의 모든 기억들을 씻어버리는 것인 지도 모릅니다.

Q: 사람은 항상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가?

A: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상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혹은 굶주린 아귀계에 태어나는 등등입니다. 천상은 미묘한 육신을 가지고 마음은 언제나 즐거움을 향유하는 그런 존재의 상태로 딱히 특정한 장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조건 지워진 것과 마찬가지로 천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거기서 그들의 수명이 다하면 인간으로 다시 잘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옥 또한 마찬가지로 미묘한 몸을 가지고 마음은 항상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는 존재의 상태로써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굶주린 아귀로 태어나는 것 역시 몸은 미묘하고, 마음은 갈망과 불만족으로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존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존재는 주로 즐거움을, 지옥과 아귀계의 존재는 주로 고통을, 그리고 인간은 그 두 가지가 섞인 경험을 주로 합니다. 인간계와 다른 계의 주요한 차이는 몸의 형태와 경험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될 곳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A: 우리가 어디에 다시 태어날 지와 어떤 종류의 삶을 살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단지 한 가지 뿐만은 아니지만, 바로 업(karma)입니다. 이 업이라는 단어는 '행위'를 뜻하며, 우리가 의도적으로 짓는 마음, 말, 몸의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의 우리는 상당 부분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친절하고 자애로운 사람들은 천상계나 혹은 즐거운 경험이 우세한 인간계에 다시 태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많거나 지나치게 잔인한 사람들의 경우 지옥계에 태어나거나 불쾌한 경험이 우세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갈망이나 지독한 열망, 불타는 듯 야망을 드러낸 사람은 굶주린 아귀 또는 갈망과 욕망 속에서 괴로워하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향을 갖습니다. 이번 생 동안에 강하게 발전시킨 정신적 습관들은 그것이 무엇이던 간에 다음 생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Q: 지옥의 존재에 대해 언급했는데 불자들은 실제로 지옥을 믿는 것인가?

A: 만일 지옥에 대해서 분노한 신이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던져 버리고 영원히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장소를 뜻한다면 대답은 'No'입니다. 불자들은 그런 생각이 오직 병들고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의 산물일 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팔리어 '니라야(Niraya)'와 '아빠야(apaya)'는 주로 지옥으로 번역되는 불교 용어지만 실제로는 '쇠퇴'와 '상실'을 뜻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부정적 요소가 지배적인 경험과 그런 정신 상태를 만들어 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가 ‘큰 바다 속에 바닥없는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실제로 있지도 않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 바닥없는 구렁텅이는 차라리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쌍웃따 니까야, S36:4.바닥없는 구렁텅이 경)”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한 편집증적인 사람은 심지어 거기에 아무 것도 없을지라도 어디에서나 위험과 음모와 배신을 봅니다. 계속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누구도 그를 판단하거나 부정적인 존재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도 어김없이 그들의 부정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따르면 지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또 다른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Q: 우리는 업의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A: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팔정도의 단계 가운데 바른 노력(正精進)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심과 우리가 얼마나 힘을 쏟는지 그리고 습관이 얼마나 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 없이 불쾌한 결과에 빠진 피해자가 되어 단순히 과거 습관의 영향력 아래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부정적인 습관을 고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고통 받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습관이 오래되면 될수록 그것을 바꾸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불자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불쾌한 결과를 가져오는 정신적 습관들을 버리고, 유쾌한 결과를 가져오는 습관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매번 모든 기회를 이용합니다. 명상은 특정한 방식 안에서 말하거나 말을 삼가는 것 그리고 행동하거나 행동을 삼가는 것으로, 마음의 습성을 고치는데 이용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불자들의 삶 전체는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단련입니다. 예를 들어, 인내심 있고 친절할 것이 지난 생에서

당신 성격의 두드러진 부분이었다면 그런 경향들은 이번 생에도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성향들이 이번 생에서 복돋아지고 더욱 계발된다면, 다음 생에서는 더욱 더 강력하고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습관은 고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는 단순하고도 관찰 가능한 사실에 기초합니다.

이제 당신이 인내심 있고 친절하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 때문에 쉽게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도 않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들과 그런 당신의 경험은 더 행복해 질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난 생의 정신적 습성 때문에 인내심 있고 친절한 성향과 함께 이번 생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삶에서 당신은 인내심과 친절함을 강화시키고 계발하는 것을 등한시 합니다. 그런 성향들은 점차 죽어가서 아마도 다음 생에는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내심과 친절은 약해지고, 이번 생과 다음 생에 성냄, 화, 잔인함이 자라고 계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들이 만들어 내는 온갖 불쾌한 경험들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생의 정신적 습성들 때문에 당신은 성미가 급하고 화내는 성향을 가지고 이번 생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습관들이 오직 불쾌함만을 초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습성들을 약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성향들은 좀 더 노력한 만큼 다음 생에 나타날 것이고, 완전히 제거될 수 있을 것이며 그래서 당신은 그러한 불쾌한 영향들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것입니다.

Q: 이번 생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 다음 생에서도 연결되어 태어나는 것이 가능한가?

A: 그렇습니다. 한번은 결혼한 지 오래된, 서로 깊이 사랑하는 노부부가 부처님께 단지 그들이 이번 생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다음 생에도 역시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만일 서로에 대한 호감이 강하고, 그들이 비슷한 수준의 믿음, 덕성, 관대함 그리고 지혜를 지니고 있다면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에게 지속적이고도 깊은 우정 혹은 사랑으로 발전할 즉각적인 호감을 가졌다면, 부처님께서서는 그들이 전생에서도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지속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의 인연은 다시 태어남의 또 다른 매우 긍정적인 측면 일 뿐입니다.

Q: 윤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어떤 증거라도 있는가?

A: 윤회에 대한 불교의 믿음을 지지하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뿐 아니라, 윤회는 이러한 믿음을 지지하는 어떤 증거를 가진 유일한 내세 이론입니다. 천상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작은 단서도 존재하지 않고, 죽었을 때 모든 것이 소멸해 버린다는 증거 또한 부족함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초심리학자들은 몇몇 사람들이 전생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5살 난 여자 아이는 그녀의 ‘다른 엄마와 아빠’를 기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속에서 벌어진 일처럼 들리는 것들을 생생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초심리학자들이 모여 들었고 소녀에게 수백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녀는 스페인이라 여겨지는 한 특정한 마을에서 살았다고 말했고, 자신이 살았던 동네와 거리의 이름, 이웃들의 이름과 그곳에서의 일상에 대해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또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어떻게 차 사고를 당했으며 그 상처로 인해 이틀 후에 죽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세부사항을 점검했을 때 초심리학자들은 그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페인에는 소녀가 말한 이름의 마을이 있었고, 또 소녀가 말한 거리에 그녀가 묘사한 형태의 집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집에 살던 23살 난 여자가 5년 전에 차 사고로 죽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살고 있고, 스페인에는 가 본 적도 없는 5살 난 여자아이가 이런 자세한 사정을 아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이것이 이런 종류의 유일한 사례는 아닙니다. 버지니아 대학의 심리학부 교수인 이안 스티븐슨(Ian Stevenson)은 그의 책에서 이런 유형의 사례를 수 십 개는 적고 있습니다. 그는 인정받은 과학자이고,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25년간의 연구는 윤회에 관한 불교의 가르침을 위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참조: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상·하. 이안 스티븐슨 지음, 송준식 옮김, 송산출판사. 또는 윤회를 나타내는 스무 가지 사례. 원서: Twenty Cases Suggestive of Reincarnation and Cases of Reincarnation Typ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Charlottesville, 1975.)

Q: 어떤 사람들은 전생을 기억하는 능력을 악마의 소행으로 가정하는데?

A: 당신의 믿음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단지 악마의 소행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엄연한 사실이 하나의 사상을 지지하기 위해 제시되었을 때, 만일 당신이 그 사실들과 맞서고 싶다면,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인 악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논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Q: 윤회도 또한 좀 미신적인 것 아닌가?

A: 미신의 사전적 정의는 ‘이유 또는 사실에 바탕을 두기보다 마치 마술에서처럼 생

각의 연상에 바탕을 둔 믿음’입니다. 만일 당신이 과학자에 의해 쓰여진 악마의 존재에 관한 면밀한 연구를 보여 준다면, 악마에 대한 믿음이 미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악마에 관한 어떤 연구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단순히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귀찮아서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윤회가 일어남을 시사하는 듯이 보이는 증거는 있습니다. 윤회를 믿는 것이 최소한 어떤 사실들에 근거한다면 그건 미신이 될 수 없습니다.

Q: 윤회를 믿는 과학자가 있기는 한가?

A: 그렇습니다. 19세기 영국 교육제도에 과학을 도입시킨 공이 있으며, 다윈의 진화론을 옹호한 최초의 과학자였던 토마스 헉슬리(Thomas Huxley)는 환생이 매우 설득력 있는 견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 진화와 윤리(Evolution and Ethics and other Essays)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기원이 확실치는 않지만 브라만 계층, 또는 불교에 나타나는 윤회설에는 우주가 인간에 대해 작동하는 방식을 인정하기 위한 길을 마련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이나 악인들을 가리지 않고 재난과 불행이 마치 빗줄기처럼 무차별 쏟아져 내립니다. 하지만 이는 비가 내리는 이치와 같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떼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인과관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우주의 작동방식이 적당한지 묻는 것은 마치 떨어져 내리는 빗줄기가 정당한 것인지를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야기입니다. 진화 이론과 마찬가지로 윤회설 역시 실재세계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회론자들은 그 관점이 유비 추론이 제공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논증 방식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Evolution and Ethics 진화와 윤리, 김기운 옮김, 지식을 만드는 지식)

저명한 스웨덴의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이며 아인슈타인의 친구이기도 한 구스타프 스트롬버그(Gustaf Stromberg)교수 또한 윤회이론이 호소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지상에서 환생할 수 있는 지 없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1936년, 인도에서는 정부 당국에 의해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철저히 조사, 보고되었다. 한 소녀(델리에 사는 산티 데위)는 “두번째 태어남”이 있기 1년 전에 마감되었

던 그녀의 전생 (델리로부터 500마일 떨어진 마투라에서 살았던)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었다. 소녀는 전생의 남편과 아이의 이름을 말했고 그녀의 집과 일생을 묘사했다. 조사 위원회는 그 진술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전생의 친척들에게로 소녀를 데려갔다. 인도 사람들 사이에서 환생은 평범한 일로 간주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그들에게 놀라운 것은 소녀가 기억해내는 방대한 양의 사실들이었다. 소녀의 경우와 또한 이와 비슷한 사건들은 기억의 불멸성에 관한 추가적인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유네스코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뛰어난 영국인 과학자 줄리안 헉슬리(Julian Huxley)는 윤회가 과학적 사고와 꽤 조화를 이룬다고 믿었습니다.

‘정확한 무선 메시지가 특별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송신 무선기에 의해 방출되는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죽음의 순간에 방출된 영원히 생존하는 정신적 개체의 존재에 반하는 점은 없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점은 무선메시지는 오직 새로운 물질적 구조, 즉 수신기와 접촉해야만 다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신적 개체는 어떤 식으로든 다시 구체화되지 않는 한 결코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다. 우리의 인격체는 육체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어느 정도 참된 의미에서 어떤 종류의 육체 없이 인격체로서의 생존을 생각할 수조차 없다. 무선 메시지가 전송 장치에 대해 갖는 관계와 같이 방출되어 나온 어떤 것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 같은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 우리가 아는 한 ‘죽은 자’들은, 마음을 위한 수신기로써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것과 접촉함으로써 의식이 현실로 되돌아 올 때까지 우주를 유영하는 다른 방식의 방해물일 뿐이다.’

미국인 기업가 헨리 포드(Henry Ford)와 같이 매우 실제적이며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도 윤회사상이 받아들일만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상이 사람에게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포드는 이 사상에 매료되었습니다.

‘스물여섯 살 때 나는 환생을 받아 들였다. 종교를 통해 환생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심지어 기업 경영마저도 내게 완전한 만족감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우리가 어느 한 생에서 축적한 체험을 그 다음 생에서 활용할 수 없다면 어떤 일을 하던 부질없을 따름이다. 내가 환생을 발견했을 때, 마치 우주의 계획을 발견한 것 같았다. 나는 내 아이디어들을 산출해 낼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은 무한히 확장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시계바늘의 노예가 아니었다. 천재는 경험에서 오는 것이다. 천재를 천부의 재능이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수많은 생애들을 살면서 쌓아온 오랜 경험의 소산이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된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이 알고 있다... 환생의 발견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만약 당신이 이런 대화의 기록을 보존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고 써라. 삶에 대한 기나긴 안목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평안함에 대해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다.’

윤희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들을 갖고 있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며, 인간 운명에 관한 몇몇 중요한 질문에 대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매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만약 당신이 이번 생애 열반을 얻지 못한다 할 지라도 당신은 다음번에 다시 노력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번 생애 실수를 저질렀을지라도 다음 생애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실수로부터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번 생애에서 할 수 없었던 혹은 성취할 수 없었던 것들이 다음 생애에서는 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입니까!

Q: 지금까지 말해 온 것들이 지적으로는 매우 만족스럽지만 여전히 윤희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인데.

A: 그래도 괜찮습니다. 불교는 당신이 반드시 참가해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믿겠다고 서약해야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당신이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윤희에 대한 믿음 없이도 여전히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실천할 수 있고, 당신이 이해하는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것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조만간 윤희의 진실을 보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6. 명상

Q: 명상이란 무엇인가?

A: 명상은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팔리어로 명상은 바와나(bhavana)인데 이것은 ‘자라나게 하다’ 혹은 ‘발전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

습니다.

Q: 명상이 중요한가?

A: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해지기를 원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행동하려는 욕망을 바꿀 수 없다면 변화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부인에게 화를 낸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시다. 아마도 그는 '지금부터 나는 그렇게 화를 내지 않을 거야'라고 스스로에게 다짐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시간 후에 그는 스스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단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급한 성질이 올라와서 아내에게 소리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상은 알아차림과 또한 뿌리 깊은 정신적 습관 양식을 바꾸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발전시키도록 도움을 줍니다.

Q: 명상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들었다. 이것이 사실인가?

A: 살기 위해서 우리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1킬로그램의 소금을 먹었다면, 그 소금은 아마도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제 구실을 하기 위해 당신은 차가 필요하겠지만, 만일 당신이 교통 법규를 따르지 않거나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한다면 차는 위험한 기계가 될 뿐입니다. 명상도 이와 같아서 그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적이긴 하지만, 만일 당신이 잘못된 방식으로 수행한다면 그것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 비이성적인 공포, 정신 분열증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명상이 그들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법이라 생각하고 명상을 시작하지만, 때때로 그들의 문제는 더욱 악화되기도 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전문적인 도움을 찾아야 하고 당신이 좋아진 후에 명상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너무 무리를 합니다. 명상을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대신 그들은 지나친 정열과 긴 시간의 명상으로 쉽게 지쳐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아마도 명상을 하는데 있어 대부분의 문제는 '캐거루 식 명상'에 기인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스승에게 가서 잠시 동안 그의 명상 지도법에 따라 수행합니다. 그리고는 책에서 어떤 내용을 읽으면 그 방법을 따라 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일주일 후에 유명한 명상 스승이 그들의 마을을 방문하면, 그의 사상의 일부를 자신들의 수행 속에 통합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곤 머지않아 절망적으로 혼란스러워 합니다. 마치 캐거루처럼 한 스승에서 다른 스승으로, 혹은 한 명상 기법에서 다른 명상 기법으로 뛰어 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어떤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없고, 명상을 시작해서 현명하게 수행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일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Q: 얼마나 많은 형태의 명상이 있는가?

A: 부처님께서서는 각각의 특정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혹은 특정한 심리적 상태를 계발하기 위해 고안된 매우 다양한 형태의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이고 유용한 두 가지 명상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anapana sati)이고, 다른 하나는 자비 명상(metta bhavana)입니다.

Q: 만일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즉 수식관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당신은 네 가지 p - 장소(place), 자세(posture), 수행(practice), 문제점 (problem) 등의 쉬운 단계들을 따라하면 됩니다. 먼저 적당한 장소, 아마도 너무 시끄럽지 않고 방해 받지 않을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로 편안한 자세로 앉아야 합니다. 앉기에 좋은 자세는 엉덩이 밑에 방석을 놓고, 척추를 곧게 펴고, 가부좌하고 앉는 것입니다. 이때 손은 무릎위에 편하게 올려놓고 눈은 감습니다. 이렇게 하는 대신, 등만 곧게 세운다면 의자에 앉아도 됩니다. 이제 실질적인 수행으로 들어 갑니다. 당신은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서 들어오고 나가는 숨의 움직임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당신은 들숨과 날숨의 숫자를 세거나, 배가 일어나고 꺼지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다보면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몸을 자극하는 간지러움이나 무릎에 불편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움직이지 않은 채로 몸의 긴장을 풀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마도 마음속에 들어와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생각이 끼어들 것입니다.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당신의 주의를 호흡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호흡에 다시 집중한다면, 마침내 생각들은 약해지고 집중력은 점점 강해져서 깊은 정신적 평정과 내면의 평화를 맞이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Q: 얼마나 오랫동안 명상을 해야 하는가?

A: 처음 일주일 동안은 매일 15분씩 명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상 시간이 45분이 될 때까지 매주 5분씩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몇 주 동안 매일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고 나면 집중력이 나아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Q: 자비 명상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A: 일단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이 익숙해지고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면 자비

명상 수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명상은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마친 후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해야 합니다. 먼저, 당신의 주의를 당신 자신에게 돌리고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고 고요하기를, 내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를, 내가 성냄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내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러면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싫어하는 사람을 한 명씩 떠올리면서 스스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Q: 자비 명상의 이익은 무엇인가?

A: 만일 당신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자비 명상을 꾸준히 수행한다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더 잘 수용하고 스스로에게 더 관대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감정이 더욱 자라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관심하고 냉담했던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악의는 점점 줄어들어 마침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때로 아프거나 불행한, 혹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알게 되면 그들을 당신의 자비 명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나서 매우 종종 그들의 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Q: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가?

A: 적절하게 계발된 마음은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정신적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방안에 있을 때 누군가 당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분명히 어떤 사람이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정신적 에너지를 포착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비 명상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긍정적인 정신적 에너지를 투영하면 그 에너지는 점차 그들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Q: 다른 형태의 명상이 있는가?

A: 최근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명상의 형태는 위빠사나(vipassana)라 불리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간파하다’ 혹은 ‘깊이 보다’라는 뜻으로, 보통 통찰 명상(insight meditation)이라고 번역됩니다.

Q: 통찰 명상은 무엇인가?

A: 통찰 명상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건 간에 그 일에 대해 생각하거나 반응하지 않은 채 단지 알아차리려고 노력합니다.

Q: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A: 보통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대해 좋고 싫음으로, 혹은 그 경험이 생각이나 공상, 기억을 일으키게 내버려 두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모든 반응들은 우리의 경험을 왜곡하거나 애매하게 해서 그 경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알아차림을 계발함으로써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더 깊은 자기 인식은 우리 삶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통찰 명상을 하는 또 다른 이점은, 그것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 자신을 분리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혹이나 도발에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조금 뒤로 물러설 수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만약 행동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철 같은 의지를 단련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좀 더 명확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 삶을 좀 더 잘 제어하게 됩니다.

Q: 통찰명상이 더 나은 우리, 더 행복한 개개인이 되도록 도와준다고 말하는 게 맞는가?

A: 통찰명상은 하나의 시작, 매우 중요한 시작입니다. 하지만 명상은 그보다 더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행이 익어가고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오히려 일반적인 것이며, '내'가 그것을 만들지 않아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심지어 그런 일을 경험하는 '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처음 명상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체험을 단지 이따금씩 어렵듯이 하게 되겠지만, 머지않아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Q: 그것은 오히려 무섭게 들린다.

A: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이 처음 이러한 경험을 할 때 그들은 약간 두려워 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곧 깊은 깨달음, 즉 그들이 항상 그들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깨달음으로 대체됩니다. 점차적으로 예고는 약해지고 머지않아 '나', '나의 것'이라는 분별력이 사라짐에 따라 예고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시점에서 불자들의 삶과 그들의 전체

적인 사고방식은 실제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개인적, 사회적, 심지어 국제적 분쟁들이 예고 속에서, 인종적인 혹은 국가적인 자만심 속에서, 학대받고 굴욕당하거나 위협당하고 있다는 판단 속에서,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야’ ‘저것은 우리 것이야’라는 날카로운 외침 속에서, 그들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에 따르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참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Q: 매우 매력적인 생각이지만 동시에 오히려 걱정스러운 생각이기도 하다.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자아라는 의식이나 소유라는 의식 없이 역할을 할 수 있는가?

A: 깨달은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자아라는 의식을 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제 역할을 하는가? 어떻게 당신은 당신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 질투, 슬픔, 자만과 같은 모든 불쾌함 들을 견딜 수 있는가? 더 축적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 항상 남보다 나아야 한다는 혹은 남을 앞서야 한다는 절박한 욕구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을지도 모른다는 성가신 감정들에 넌더리가 난 적은 없는가?” 깨달은 사람들은 꽤 훌륭하게 삶을 살아가는 듯이 보입니다. 깨달지 못한 사람들, 당신 그리고 내가 모든 문제를 갖고 있으며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Q: 당신의 요점은 알겠지만 깨달으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명상해야 하는가?

A: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명상을 시작하고 그 명상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왜 지켜보지 않습니까? 만일 당신이 성실함과 지성을 갖고 수행한다면, 명상이 당신 삶의 질을 상당히 개선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 당신은 명상과 불법을 좀 더 깊이 탐구하고 싶어질 지도 모릅니다. 훗날 명상은 당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행을 떠나기도 전에 그 길의 더 높은 단계들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에 한 계단씩 밟아 가야 합니다.

Q: 명상을 가르쳐 줄 스승이 꼭 필요한가?

A: 스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명상에 정통한 사람으로부터 개인적인 지도를 받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스님들이나 재가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스스로를 명상 스승인 척 합니다. 평판이 좋고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진,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아주 충실한 스승을 선택하

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Q: 오늘날 명상은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A: 그렇습니다. 현재 명상은 마음에 대한 높은 치료 효과를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많은 전문적 정신 건강 담당자들에 의해 긴장을 풀어주고, 공포증을 극복하며, 자기 성찰을 가져오도록 돕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한 부처님의 통찰은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7. 지혜와 자비

Q: 종종 불자들이 지혜와 자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이 두 가지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A: 어떤 종교들은 자비 또는 사랑(이 둘은 매우 흡사합니다)이 가장 중요한 정신적 특질이라고 믿지만, 지혜에 대해 주목하는 것을 잊곤 합니다. 그 결과 당신은 착한 심성을 가진 바보, 즉 매우 친절하지만 이해력은 거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과학 같은 다른 체계의 사상은, 자비를 포함한 모든 감정들에서 벗어나 있을 때 지혜가 가장 잘 계발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과로 과학은 결과에만 몰두하게 되어, 인류를 통제하거나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에 도움이 되기 위해 과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과학자들이 핵폭탄이나 세균전 같은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기술을 빌려줄 수 있었던 말입니까? 불교는 진정으로 균형 잡힌, 나무랄 데 없는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와 자비를 함께 계발시켜야한다고 가르칩니다.

Q: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인가?

A: 최상의 지혜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않으며, 자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완전히 자유로우며, 열반이라 불리는 최상의 안전과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서는 이런 경지의 지혜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들은 것을 단순히 믿는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란 우리 스스로가 직접 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에서의 지혜는 달린 마음 보다 열린 마음을 유지하

는 것입니다. 편협하기보다 다른 견해들을 듣는 것, 우리의 믿음과 반대되는 사실들을 모른 채 하기보다 주의 깊게 조사하는 것, 선입견을 갖기보다 객관적일 것,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첫 번째 것이라거나 혹은 가장 감동적인 것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견해와 믿음을 형성하는데 시간을 갖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대립하는 사실들이 나타날 때 언제라도 그 믿음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확실히 지혜로운 사람이며 분명 언젠가는 참된 깨달음에 도달할 것입니다. 불자의 길은 용기와 인내, 융통성과 지성을 필요로 합니다.

Q: 생각건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만일 소수의 사람만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불교의 견해는 무엇인가?

A: 아직 모든 사람들이 불교의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생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다 해도 다음 생에서는 충분히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올바른 몇 마디의 말과 격려만으로도 깨달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불자들은 친절하게 그리고 조용히 다른 사람들과 불교의 통찰력을 나누려고 애씁니다.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자비심으로 다른 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Q: 불교에서 자비란 무엇인가?

A: 지혜가 우리 본성의 지적인 혹은 포괄적인 이해력의 측면을 다루는 것처럼, 자비는 정서적인 혹은 감정적인 측면을 다룹니다. 지혜와 마찬가지로 자비는 독창적인 인간의 특성입니다. 자비는 두 라틴어 즉 ‘함께’를 뜻하는 com과 ‘고통’을 뜻하는 passio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비가 뜻하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이 괴로워하는 걸 볼 때 우리는 그 고통이 마치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느끼며 그 고통을 덜어 주거나 없애주려고 애쓰는데, 그것이 자비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모든 최상의 것, 즉 부처님과 같은 모든 특성들 - 나눔, 기꺼이 편의를 제공함, 동정, 배려와 보살핌 - 이 모든 것들이 자비의 표출입니다. 당신은 또한, 자비로운 사람이 타인을 보살피고 사랑할 때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보살핌과 사랑으로부터 비롯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알 때, 타인을 위해서도 무엇이 최선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가엾게 여길 때, 다른 사람도 가엾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한 사람의 정신적 발전은

타인의 행복을 위한 관심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꽃 피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의 일생은 이러한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자신의 행복을 위해 6년간 고행한 후에 비로소 인류 전체에게 보탬이 될 수 있었습니다.

Q: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도운 후에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더 잘할 수 있다는 말인데, 좀 이기적인 것 아닌가?

A: 보통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이타주의를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반대로 봅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타주의니 이기주의니 하고 나누기보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으로 봅니다. 참된 자기 배려는 진정으로 타인이 나와 같다고 여길 수 있을 때, 타인에 대한 배려 속에서 점차적으로 성숙해갈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자비는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Q: 전에 당신은 자비와 사랑이 비슷하다고 말했는데, 그 둘이 어떻게 다른가?

A: 아마도 자비와 사랑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영어에서 사랑이란 말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느낌들을 묘사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님, 아이들,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 모든 종류의 느낌은 분명 차이점이 있지만, 그 모든 감정을 위해 사랑이라는 한 단어를 쓰도록 허용할 충분한 공통 요소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공통요소들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서 친밀함을 찾고, 관심을 발견하고, 그들의 행복을 염려하고, 남들을 짜증나게 할 수 있는 그들의 습관과 특징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며, 그들을 잘 챙겨주어야 한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타인에 대한 관계, 친절, 관심과 배려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느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 없는 자비심을 발하라’ (숫타니파나, Sn.149)

불교에서는 이런 ‘무한한 사랑’을 메타(metta, 자애)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고통 받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 염려라는 사랑의 요소가 우세해지면서 그것은 자비로써 그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비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관

계된, 사랑하는 마음의 방식입니다.

Q: 당신이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일 때,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할지도 모른다.

A: 그것은 꽤나 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만일 당신이 이기적이고 공격적이라고 해도, 항상 당신보다 더 심술궂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당신의 선함에서 이익을 취하려 드는 것도 사실인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감사하고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을 이용하려드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친구들과 도와주려는 사람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당신이 싫어하는 바로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8. 채식주의

Q: 불자는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하는가?

A: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채식주의자는 아니셨고, 제자들에게 채식주의자가 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습시다. 또한 오늘날에도 채식주의 하지 않지만 훌륭한 불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난폭하고 잔혹하며 험담을 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무자비하며 몹시 오만하고 인색해서 아무것도 남에게 주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성질이 나쁘고 빛을 갹지 않고 밀고를 하고, 재판정에서는 위증을 하며, 정의를 가장하여 사악한 짓을 하는 등 이 세상에서 가장 몹쓸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숫타니파타, Sn.244,6)

Q: 하지만 만일 당신이 고기를 먹는다면 죽은 동물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것은 첫 번째 계율을 어기는 것 아닌가?

A: 고기를 먹을 때 간접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생명체를 죽이는데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채소를 먹을 때도 사실은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수확물이 흠집 없이 당신의 식탁에 오르려면 농부는 살충제나 유독물질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물은 당신의 벨트나 핸드백에 쓰일 가죽을 제공하기 위해 죽

임을 당합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비누의 유분이나 수많은 다른 생산품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생명체의 죽음에 대해 간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진실은 사성제 중 첫 번째 진리의 또 다른 예일 뿐입니다: 일반적인 존재는 고통스럽고 불만족스럽습니다. 첫 번째 계율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생명체를 죽이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Q: 대승불교권의 불자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에서 대승불교는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몽고, 티벳 같은 대승 불교의 전통에서는 스님과 재가자 모두 고기를 먹습니다.

Q: 그러나 여전히 불자들은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할 것 같다.

A: 만일 매우 엄격한 채식주의자이지만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않으며 인색한 사람이 있고,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사려 깊고 정직하며 관대하고 친절할 사람이 있다면,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훌륭한 불자이겠습니까?

Q: 정직하고 친절할 사람이다.

A: 왜?

Q: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A: 바로 그것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불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기를 먹는 사람도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 마음의 품격이지 식단의 내용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매우 신경을 쓰지만, 이기적이거나 부정직한 것, 잔인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식단에 변화를 주는 것은 쉽게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기 어려운 일로 방치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채식주의자이건 아니건 간에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Q: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좋은 심성을 가지고 채식을 하는 사람이 좋은 심성을 가졌지만 육식을 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인가?

A: 만일 마음씨 좋은 채식주의자가 육식을 피하는 동기가 동물을 걱정하고 현대적인 집단 사육의 잔혹성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면, 그는 분명 육식을

하는 사람보다 더 높은 정도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비심을 계발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성숙해감에 따라 채식주의 쪽으로 옮기려는 자연스런 경향을 갖게 됩니다.

Q: 부처님이 상한 돼지고기를 드셔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

A: 아닙니다. 경전에는 부처님의 마지막 음식이 수카라 맛다와(sukara maddava)라고 불리는 음식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제 이해할 수 없지만, 단어 수카라는 돼지를 뜻하기 때문에 단순히 야채류거나 빵 혹은 그 밖의 다른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돼지고기의 조리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음식이 무엇이었던 간에 이러한 음식에 대한 언급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드신 것이 부처님이 돌아가신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을 때는 80세이셨고 한동안 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사실 부처님께서 연로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9. 행운과 운명

Q: 부처님께서 마술이나 예언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는가?

A: 부처님께서서는 예언, 보호를 위한 닳아빠진 부적, 건물을 위해 길한 장소 정하기, 행운의 날을 택하는 것과 같은 행동들을 불필요한 미신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런 행동을 특별히 금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이런 모든 행동들을 ‘저속한 술책’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재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샷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즉 몸의 특징으로 예언하기, 예감이나 징조로 예언하기, 벼락이나 하늘의 조짐에 따라 점치기, 해몽, 관상, 집터보기... 그러나 사문 고탓마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샷된 생계수단을 멀리 여의었다.’ (디가 니까야, D1:1,21.범망경)

Q: 그러면 사람들이 때때로 그런 행동을 하고 또 그것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A: 그것은 탐욕과 두려움과 무지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자마자 사람들은 종이 조각이나 쇠붙이, 몇 마디의 주문보다 그들의 순수한 정신이 훨씬 더 자

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으며,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의지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진실로 당신을 보호해주고, 당신에게 진정한 성공을 가져다주는 것들은 정직, 친절, 이해, 인내, 용서, 관대함, 충절 그리고 그 외의 훌륭한 품성들입니다.

Q: 그러나 어떤 행운의 부적들은 효과가 있다. 그렇지 않은가?

A: 행운의 부적을 팔아서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부적이 행운과 성공을 가져다주며, 당첨될 복권의 숫자를 예견할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신 스스로는 왜 백만장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만일 행운의 부적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왜 그는 매주 복권에 당첨되지 못하는 걸까요? 그가 가진 유일한 행운은 그의 부적을 살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충분하다는 것뿐입니다.

Q: 그러면 운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가?

A: 사전에서는 운(luck)을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나 우연, 운명 또는 운수 때문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이런 믿음을 철저히 부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특정한 하나의 원인이나 혹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고,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 병이 걸리는 데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세균과의 접촉이 있었고, 세균이 자리를 잡기에 충분할 만큼 몸이 약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세균이 생명체를 공격해서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원인(세균과 허약한 신체)과 결과(질병) 사이에는 명확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마디 글자가 적힌 닳아빠진 종이꼬가리와, 부자가 되거나 시험에 통과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건 그 일은 하나의 혹은 여러 개의 원인들 때문이지 운수나 우연이나 운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운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통 더 많은 돈과 재산 같은 것을 얻기 위해 항상 애를 씁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계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식과 기술을 쌓고 그 위에 말솜씨가 뛰어난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부모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스럽지 않은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남에게 베풀고 이치에 맞게 행동하며 적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비난을 받지 않게 처신하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악을 싫어해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고 덕행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존경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와, 때로는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인내하고 온화하게 말하고 수행자들을 만나고, 때로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숫타니파타, Sn. 261-6)

10. 비구와 비구니

Q: 불교에서 승가조직은 중요한 것이다. 비구, 비구니 스님들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A: 비구와 비구니 승단을 세운 부처님의 목적은, 좀 더 쉽게 정신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가 불자 공동체는 비구와 비구니에게 기본적인 필수품 - 음식, 가사, 거처, 의약품 -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그들의 시간을 불법 연구와 수행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사원의 정돈되고 간소한 삶의 방식은 내면의 평화와 명상을 이끌어 냅니다. 그 대신 비구, 비구니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공동체와 나누고, 훌륭한 불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보기로써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실적인 실천에서 이러한 기본적 임무는 때때로 부처님이 본래 의도했던 바를 훨씬 넘어 확장되어, 오늘날 비구, 비구니들은 교사, 사회사업가, 예술가, 의사 심지어는 정치가로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만약 그런 일들이 불교를 장려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 논쟁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스님들이 그런 일을 함으로써 세상의 문제들에 너무 쉽게 말려들어 출가했던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Q: 어떤 사람들이 비구 또는 비구니가 될 수 있나?

A: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속에서 가족이나 직업, 취미, 정치, 종교 등등의 다양한 흥밋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흥밋거리들 가운데 하나는 일 순위가 되는데, 보통 그것은 가족이나 직업이고, 반면 나머지 것들은 중요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한 사람의 삶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때, 다른 모든 것들보다 우선권을 가질 때, 그 때, 그 사람은 아마도 비구 혹은 비구니가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Q: 깨달기 위해서는 비구 혹은 비구니가 되어야만 하는가?

A: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의 제자들 중 몇몇은 남·여 재가신도였고, 어떤 이들은 스님들을 지도하기에 충분할 만큼 정신적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사람의 깨달음의 수준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가사를 수했건, 청바지를 입었건, 사원에 살건, 가정집에서 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원의 모든 장·단점과 함께, 사원이 정신적으로 성장하기에 최적의 장소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정생활의 모든 기쁨·슬픔과 함께, 집이 (그들의 성장에) 최적의 장소임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릅니다.

Q: 왜 비구, 비구니는 황색 가사를 입는가?

A: 고대 인도인들이 울창한 숲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나무에서 어떤 잎이 떨어질지 늘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잎들은 황색이거나 주황색 혹은 갈색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도에서 황색은 출가의 색이 되었습니다. 비구, 비구니의 가사는 황색이고, 그것은 집착하지 않음, 내버려둠, 포기함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Q: 비구, 비구니들이 머리를 삭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A: 보통 우리는 외모, 특히 머리모양에 매우 신경을 씁니다. 여성들은 아름다운 머리모양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남성들은 대머리가 될까 봐 꽤나 신경을 씁니다. 머리스타일을 보기 좋게 유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삭발을 함으로써 비구와 비구니들은 스스로에게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위해 시간을 더 할당합니다. 또한 삭발한 머리는 밖으로 보이는 외모보다는 내면의 변화에 더 집중한다는 이상을 상징해 왔습니다.

Q: 스님이 되는 것은 정말 좋지만 만약 모두가 스님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A: 사람들은 어떤 직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물을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되는 건 정말 좋지만 만일 모든 사람들이 치과의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세상엔 선생님도 없고, 요리사도 없고, 택시 운전사도 없을 거야.' '선생님이 되는 건 정말 좋지만 만일 모두가 선생님이 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치과의사도 없고, 다른 직업 역시 없을 거야.'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비구나 비구니가 되어야 한다고 권하지 않으셨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간소한 삶과 출가의 삶에 매료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부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과의사나 선생님과 같이 스님들도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Q: 가르치거나, 책을 쓰거나, 사회 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명상만 하는 비구, 비구니는 어떤가? 그들은 공동체에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A: 당신은 명상하는 스님들을 연구하는 과학자와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마침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어떤 것을 발견하거나 혹은 발명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면서 앉아 있는 그들을 후원합니다. 이와 같이, 불자조직에서는 명상하는 스님들이 공공의 이익을 가져올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들을 후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명상하는 스님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일부에서는 사치와 눈에 띄는 소비, 방종이 함께하는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최소한 부러워하거나 따라야 할 전형인 것처럼 제시됩니다. 명상하는 스님의 본보기는 우리에게 만족하기 위해 부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평온하고 간소한 삶의 방식 역시 그 자체의 이점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Q: 더 이상 비구니는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A: 부처님께서서는 그의 생애 동안 비구니 승단을 세우셨고, 그 후 5-6백 년 동안 비구니들은 불교 발전과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치 않은 이유로 비구니들은 결코 비구와 같은 지위를 누리거나, 그 같은 후원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인도, 스리랑카, 티벳,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승단이 소멸했습니다. 그러나 대만, 한국, 일본에서 비구니 승단은 번영을 유지했습니다. 오늘날 스리랑카에서는 몇몇 전통주의자들이 이 일에 대해 그다지 열성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으로부터 비구니 승단을 재도입하려는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본래 의도를 지켜가는 가운데,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사원에서 생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기회를 가지는 것이 옳습니다.

11. 불교 경전들

Q: 거의 모든 종교는 신성한 문서나 성전 같은 것을 갖고 있다. 불교의 성전은 무엇인가?

A: 불교의 성스러운 책은 삼장(Tipitaka)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직접 구사하신 언어와 매우 가까운 팔리어라는 고대 인도어로 쓰여 졌습니다. 이 삼장은 매우 많은 분량의 책입니다. 삼장의 영어 번역본은 거의 40권에 이릅니다.

Q: 삼장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뜻하는가?

A: 삼장은 두 개의 팔리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띠(Ti)는 '3'을 뜻하고 빠따까(pitaka)는 '바구니'를 뜻합니다. 이름의 첫 번째 부분은 불교 경전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경장(Sutta Pitaka)이라 불리는 첫 번째 부분은,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에 의한 설법의 일부와 부처님의 모든 설법을 담고 있습니다. 경장에 담긴 글의 형식은 매우 다양해서, 부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진리를 전달해 줍니다. 부처님 설법의 대부분은 설교 형식이거나 아니면 대화 형식입니다. 법구경(Dhammapada) 같은 다른 부분은, 시의 기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표현합니다. 다른 예로 본생담(Jataka)은 즐거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야기 속 등장인물은 종종 동물들입니다. 삼장의 두 번째 부분은 율장(Vinaya Pitaka)입니다. 이것은 비구와 비구니를 위한 규범과 수계절차, 사원 운영과 합의절차에 관한 충고, 초기 계단 설립의 역사를 포함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논장(Abhidhamma Pitaka)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개인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분석하고 분류하기 위한 복잡하고 철학적인 시도입니다. 비록 논장이 삼장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부분보다는 다소 늦었지만,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것은 하나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빠따까(藏, 바구니)'라는 단어를 보면, 고대 인도에서 건설 노동자들은 바구니를 릴레이식으로 전달함으로써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건축 재료를 옮기곤 했습니다. 그들은 머리 위에 바구니를 이고 다음 사람이 있는 얼마간의 거리를 걸어서 그에게 바구니를 넘겨주었을 것이고, 이런 과정은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글을 쓰는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전달 수단으로써 그것은 인간의 기억력보다 덜 믿음직하게 여겨졌습니다. 책은 우기의 습기에 상할 수도 있고 흰개미에게 먹힐 수도 있지만, 사람의 기억은 그들이 살아 있는 한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구와 비구니들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일을 책임지게 되었고, 마치 건설 인부들이 바구니로 서로에게 흙이나 벽돌을 건네주는 것처럼 그 기억들을 서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이 불교 경전의 세 부분이 바구니라고 불리는 이유입

니다. 이런 식으로 수백 년 동안 보존되어 오던 삼장은 대략 기원전 100년경 마침내 스리랑카에서 기록되었습니다.

Q: 만일 경전이 그렇게 오랫동안 암기에 의해서 보존되었다면 그것은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다. 부처님 가르침의 상당부분이 사라졌거나 변했을 수 있지 않은가?

A: 경전의 보존은 비구, 비구니 승단 공동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인 간격을 두고 함께 모여서 삼장의 일부분이나 전부를 암송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도 덧붙여지거나 바뀌는 것을 실제로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백 명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외워서 알고 있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 동안, 한 사람이 가사 한 줄을 틀리거나, 새로운 가사를 삽입하려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노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비구, 비구니들이 명상을 했었다는 사실과 함께, 텔레비전·신문 혹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산란하게 하는 광고도 없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굉장히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책이 이용된 후로도 오랫동안 여전히 삼장 전체를 외워서 암송할 수 있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버마의 멘공 사야도(Mengong Sayadaw)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기억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Q: 당신은 팔리(Pali)를 언급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A: 팔리는 가장 오래된 불교 경전에 쓰여진 언어의 이름입니다. 부처님이 사용하신 언어가 무엇인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지만, 그것은 전통적으로 팔리어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팔리어와 매우 흡사한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사실 부처님은 매우 광범위한 곳을 다니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당시 북인도에서 통용되던 몇 가지 언어를 구사했을 것입니다.

Q: 불자들에게 경전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A: 불자들은 삼장을 신성하다거나 신으로부터의 확실한 계시라거나 모든 말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그것은 설명, 조언, 안내, 격려를 주는 한 위대한 사람의 가르침의 기록이고, 그래서 신중하고 정중하게 읽혀져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삼장이 가르치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지 단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항상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확인되어야 합니

다. 정보에 근거해서 경전을 대하는 불자들의 태도는 학술지에 실린 연구논문을 대하는 과학자의 태도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과학자가 실험을 실시하고 그가 발견한 것과 결론을 학술지에 발표합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그 논문을 읽고 그 내용을 존중하지만, 그들이 같은 실험을 해서 같은 결론을 얻을 때까지는 그 발표가 유효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Q: 당신은 전에 법구경을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A: 법구경은 삼장의 첫 번째 부분 중에서 가장 짧은 저작물의 하나입니다. 이 이름은 '진리의 길' 혹은 '진리의 시편'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법구경은 총 423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중에는 함축적인 시, 심오한 시, 매력적인 비유를 포함한 시, 매우 아름다운 시들이 있습니다. 모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법구경은 가장 대중적인 불교 문학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주요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세계 종교 문학의 걸작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Q: 어떤 사람은 불교 경전을 바닥에 두거나 겨드랑이 사이에 끼어서는 결코 안 되고 높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인가?

A: 중세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최근까지도 불교국가에서는 책이 귀하고 가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전은 항상 대단히 존중받으며 다루어져 왔고, 지금 말한 관습이 그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나 관습과 전통적 관행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 경전을 존중하는 최고의 방법은 경전에 담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Q: 불교 경전은 길고, 반복적이고, 지루해서 읽기 어렵다.

A: 어떤 종교의 경전을 펼칠 때 우리는 우리를 향상시키고 고무하는 찬양, 환희, 칭송의 말을 읽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 까닭에 불교 경전을 읽는 어떤 사람은 다소 실망하기 쉽습니다. 부처님의 설법 중 일부는 무시할 수 없는 매력과 아름다움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용어의 정의, 신중하게 추론된 논의, 수행이나 명상에 대한 상세한 충고, 그리고 명확하게 진술된 사실이라는 점에서 철학 논문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들은 감성에 호소하기보다 지성에 더 호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경전을 다른 종교의 성서들과 비교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교 경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미 - 명확성, 깊이 그리고 지혜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Q: 불교 경전은 원래 야자수(palm tree) 앞에 쓰여 졌다고 읽었는데, 왜 그랬는

가?

A: 경전이 쓰여 졌던 그 당시에 인도나 스리랑카에서는 종이가 발명되지 않았습니
다. 편지나 계약서, 청구서, 증명서와 같은 일반 문서들은 동물의 가죽, 얇은 금속판
또는 야자수 잎에 쓰여 졌습니다. 불자들은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았
고, 얇은 금속판에 경전을 새기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자수 잎이 사용되었습니다. 야자수 잎들이 특별히 준비된 후에 그것은 마
치 요즘 책처럼, 끈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오래가도록 두 장의
나무 표지 사이에 놓여 졌습니다.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갔을 때 경전은 비단이나 종
이에 쓰여 졌습니다. 약 5백년 후에, 경전 사본을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요구가 인
쇄술의 발명을 이끌어 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본 책은 828년에 출간
된 부처님 설법 중 하나로 중국어 번역본입니다.

12. 역사와 발전

Q: 불교는 지금 수많은 여러 나라에 상당한 수의 신도가 있는 종교이다. 어떻게 이
렇게 되었나?

A: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150년 이내에 그의 가르침은 이미 북인도를 거쳐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후 기원전 약 262년, 당시 인도의 황제였던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황제는 불교로 개종하고 그의 전 영토에 불법을 전파했습
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고귀한 윤리적 규범, 특히 힌두교의 신분제도(카스트,
Caste)를 반대하는 것에 매료되었습니다. 아쇼카는 또한 중대한 불교결집을 개최하
고, 주변 국가와 심지어 멀리 유럽에까지 포교를 위해 스님들을 파견했습니다. 이런
포교단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스리랑카에 갔던 스님들이었습니다. 그 섬은
불교 국가가 되었고 그 이래로 지금까지 불교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포교단들
은 남인도와 서인도, 카슈미르 그리고 지금의 남부 버마와 태국반도에 불교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 후 한 세기 내외에 아프가니스탄과 북인도의 산악지역은 불교국가
가 되었고, 그곳으로부터 스님과 상인들이 점차적으로 중앙아시아로 불교를 가져가
서 마침내 중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후에 중국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에 전해졌습
니다.

불교가 중국에 뿌리를 내린 진정 유일한 외래의 사상 체계라는 점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대략 12세기에 불교는, 주로 스리랑카에서 건너 온 스님들의 노

력에 의해 버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주된 종교가 되었습니다.

Q: 티벳은 언제, 어떻게 불교국가가 되었는가?

A: 8세기경 티벳의 왕은 스님들과 불교 경전을 모셔오기 위해 인도에 대사를 파견했습니다. 불교가 유행하긴 했지만, 토착 종교인 본교 사제들의 반대가 부분적인 원인이 되어 주요 종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마침내 11세기에 많은 수의 인도스님들과 스승들이 티벳에 왔고, 불교는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이후로 티벳은 가장 열성적인 불교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Q: 그래서 불교는 매우 널리 전파되었다.

A: 그뿐만 아니라, 불교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다른 종교를 박해하거나 군대를 앞세워 정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불교는 항상 온화한 삶의 방식을 유지해왔고, 믿음을 권유하기 위해 무력이나 압력을 행사한다는 생각은 불자들에게는 비위에 거슬리는 일입니다.

Q: 불교는 그것이 전해진 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나?

A: 스님들이 포교를 위해 여러 나라에 갔을 때, 그들은 단지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가져 간 것이 아니라 인도 문명 최고의 양상 중 일부를 함께 가져갔습니다. 스님들은 때때로 의술에 능통했고,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던 지역에 새로운 의학 사상을 소개했습니다. 스리랑카나 티벳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몇몇 지역에서는 스님들이 글을 소개할 때까지 저술 작업이 없었고, 저술과 함께 새로운 지식과 사상이 들어 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불교가 전래되기 전에 티벳과 몽고인들은 거칠고 사나운 사람들이었는데, 불교가 그들을 온화하고 문명화 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인도 내에서도 동물을 희생하는 제사는 불교 때문에 유행에 뒤떨어지게 되었고, 카스트 제도는 적어도 한동안은 좀 덜 가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불교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퍼져 나감에 따라, 현대 서양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불교식 통찰의 일부에 의해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Q: 왜 불교는 인도에서 소멸했나?

A: 지금까지 누구도 이 불행한 전개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설명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불교가 타락해서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힌두교의 사상을 너무 많이 받아 들여서 점차 힌두교와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고도 말합니다. 또 다른 이론은, 스님들이 왕의 후원을 받는 대규모 불교 사원

에 모여 살기 시작했고 이것이 일반인들로부터 스님들을 소외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유가 무엇이건 간에 8세기 또는 9세기에 인도 불교는 이미 심각하게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이슬람이 인도를 침략한 13세기, 혼돈과 폭력의 시기에 불교는 인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Q: 하지만 여전히 인도에는 약간의 불자가 있다. 그렇지 않은가?

A: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20세기 중반 이후 불교는 인도에서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가촉천민들은 힌두 카스트제도 아래에서 너무나 고통 받고 있었기 때문에 1956년, 인도 불가촉천민의 지도자가 불교로 개종했습니다. 그 이후로 8백 만 명의 사람들이 불자가 되었고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Q: 불교가 처음 서양에 알려진 것은 언제인가?

A: 불자가 된 최초의 서양인들은 아마도 기원전 3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인도침략 이후 인도에 이주했던 그리스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불교 서적 중 가장 중요한 책의 하나인 밀린다판하(Milindapanha)는, 인도 스님 나가세나와 그리스계 인도 왕 밀린다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불교는 학자들이 불교 경전을 번역하고 불교에 관한 저술을 시작한 19세기 말 서양에서 찬탄과 존경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대 초까지 소수의 서양인들만이 스스로를 불자라 칭했고, 한 두 명 정도는 스님이 되기도 했습니다. 1960년 이후로 서양 불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오늘날 그들은 대부분의 서양 국가에서 작지만 중요한 소수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Q: 다른 형태의 불교에 대해서도 말해줄 수 있는가?

A: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불교는 몽고부터 몰디브까지, 발크(Balkh, 아프가니스탄 인근)부터 발리(Bali, 인도네시아 인근)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에게 호소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수세기 동안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사회적, 지적인 삶이 발전함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법의 핵심은 동일하게 유지되었지만 외형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은 남방 상좌부 불교(Theravada), 대승 불교(Mahayana), 금강승 불교(Vajrayana) 이 세 가지 주요한 형태의 불교가 있습니다.

Q: 상좌부 불교란 무엇인가?

A: 테라와다(theravada)라는 이름은 장로들의 가르침을 뜻하며, 가장 오래되고 가

장 완전한 부처님 가르침의 기록인 팔리 삼장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상좌부 불교는 좀 더 보수적이고 사원 중심인 불교 형태로, 불법의 기본적인 것들을 강조하며 좀 더 간소하고, 금욕적인 접근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상좌부 불교는 주로 스리랑카, 버마, 태국, 라오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Q: 대승불교란 무엇인가?

A: 기원전 1세기 경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일부 함축적인 것들은 더 깊이 연구되었습니다. 또한 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 새롭고 좀 더 적절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발전과 해석으로부터 성장한 많은 부파들을 총체적으로 ‘큰 수레’라는 의미의 대승불교로 부르는데, 그 이유는 불교가 단지 세상을 떠나 출가한 비구, 비구니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합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대승불교는 결국 인도에서 우세한 불교 형태가 되었고, 오늘날 중국, 한국, 대만, 베트남, 일본에서 실천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좌부 스님들은 대승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승불교인들은 부처님이 모든 진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로 변화를 인정하셨으며, 그들의 불교 해석을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도토리나무가 도토리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만큼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Q: 종종 소승불교라는 용어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용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A: 대승 불교가 발전하고 있을 때 그들은 초기의 불교 부파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대승불교 즉 ‘큰 수레’라 불렀고, 초기부파를 ‘작은 수레’라는 뜻의 소승불교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소승불교는 대승 불교인들이 상좌부 불교인들에게 지어준 다소 분파주의적인 이름입니다.

Q: 금강승 불교란 무엇인가?

A: 이 형태의 불교는 힌두교가 중요한 부흥을 겪고 있던 6세기와 7세기 인도에서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향으로 일부 불자들은 힌두교의 측면들, 특히 신들에 대한 숭배와 정교한 의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11세기에 금강승 불교는, 그러한 측면들이 더욱 발전했던 티벳에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금강승 불교는 ‘다이아몬드 수레’를 뜻하며, 추측컨대 금강승 불교인들이 그들 사상의 일부를 정당화하고 방어하기 위해 사용했던 깨트릴 수 없는 논리와 관계가 있는 듯합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경전보다 탄트라(Tantra)라고 불리는 문헌의 형태에 좀 더 의지하고 있어

서 때로는 밀교(Tantrayana)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강승은 현재 몽고, 티벳, 라다크, 네팔, 부탄 그리고 인도에 살고 있는 티벳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Q: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데, 만일 불교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어떤 불교를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A: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강물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강의 근원지에 가보고 나서 하구에 가 보면 그 둘은 아마도 매우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강의 근원지로부터 강을 따라 내려간다면, 언덕과 골짜기를 통과하고, 폭포를 지나, 강으로 흘러드는 수많은 물줄기를 지나면서 당신은 마침내 하구에 다다를 것이며 왜 그것이 근원지와 그렇게 달라 보였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불교를 공부하고자 한다면, 사성제와 팔정도, 역사적인 부처님의 삶 등과 같은 기본적인 초기 가르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가르침과 사상들이 전개되었는지 공부한 후, 당신이 가장 끌리는 불교에 접근하는데 집중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강의 근원지가 하구보다 열등하다거나, 하구가 근원지의 왜곡이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13. 불자가 되는 길

Q: 지금까지 말한 것은 매우 흥미로웠다. 불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이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아서 그의 제자 중 한명이 되기로 결심했던 우빨리(Upali)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심사숙고한 연후에 행하라. 그대와 같은 유명한 사람은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다.’ (맛지마 니까야, M:56.우빨리경)

불교에서 이해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해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해는 어떤 과정의 맨 마지막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충동적으로 불교에 뛰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나서 결정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를 두는 데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주의 깊은 조사와 사실을 심사숙고한 결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

습니다.

Q: 만일 그렇게 한 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받아 들일만 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불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A: 좋은 절이나 불자 모임에 참여해서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지원 받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계속해서 좀 더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준비가 되었을 때, 삼귀의를 수지함으로써 정식으로 불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삼귀의란 무엇인가?

A: 귀의처란, 사람들이 괴롭거나 혹은 안전하고 보호받을 곳이 필요할 때 가는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귀의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할 때, 그들은 친구들을 귀의처로 삼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붓다와 담마와 그리고 그 상가를 의지처로 삼으면, 맑고 올바른 지혜로써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보게 된다. 독카의 현존의 진리, 독카의 원인의 진리, 독카의 완전한 소멸의 진리, 독카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의 진리.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의지처, 이것이야말로 가장 으뜸가는 의지처, 이것을 의지처로 삼았을 때 비로소 그는 모든 독카로부터 해탈하리.’ (법구경, Dhp.189-192)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마치 부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한 사람이 완전히 깨달아서 완벽해 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에 찬 수용입니다. 법에 귀의한다는 것은, 사성제를 이해하고 팔정도에 기초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가에 귀의한다는 것은, 팔정도를 걷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지와 격려, 지도를 구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은 진정한 불자가 되고, 열반으로 향하는 길에 첫 발을 내딛은 것입니다.

Q: 처음으로 삼귀의를 수지한 후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A: 2500여년을 지나오면서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이치에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의미한 삶에 의미를 주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 삶을 이끌 인도적이고 자비로운 윤리를 주었고, 이번 생에서 그리고 이번 생에 안 된다면 다음 생에서, 정확되고 완전한 상태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고대 인도의 시에는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귀의하기 위해 그에게 가는 것, 그를 찬탄하는 노래를 하는 것,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의 법안에서 머무는 것. 이것이 깨달음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나는 이 구절에 완전히 공감합니다.

Q: 항상 나를 개종시키려는 친구가 있다. 정말로 그의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나를 내버려두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이 사람은 당신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바램을 존중합니다. 이 사람이 그저 당신 친구인 척해서 그의 종교로 개종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신에게 자신들의 의지를 강요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친구가 아닙니다.

Q: 하지만 그는 나와 종교를 공유하기 원한다고 말한다.

A: 다른 사람과 종교를 공유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당신 친구는 공유와 강요의 차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사과를 가지고 있어서 당신에게 반쪽을 주었고 당신이 그것을 받았다면, 그때 나는 당신과 함께 공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고맙지만 난 벌써 먹었어’라고 말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당신이 마침내 내 압력에 굴복할 때까지 사과 반쪽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공유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친구’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나쁜 행위를 ‘공유’, ‘사랑’, 또는 ‘증언’이라고 부르며 위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건 간에, 그들의 행동은 여전히 무례하고 예의가 없으며 이기적인 것입니다.

Q: 그럼 어떻게 그만두게 할 수 있는가?

A: 그것은 간단합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둘째로 분명하고 간단하게 그에게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셋째로 그가 당신에게 ‘이 문제에 대한 너의 믿음은 무엇이지?’ 혹은 ‘왜 너는 나와 함께 모임에 가려고 하지 않지?’와 같은 질문을 할 때, 분명하면서도 정중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당신의 첫 번째 진술을 반복해야 합니다. ‘초대는 고맙지만 가지 않는 편이 좋겠어.’

‘왜?’

‘내 개인적인 일이야. 가지 않겠어.’

‘거기 가면 흥미로운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분명 많겠지만, 나는 가지 않겠어.’

‘나는 너를 염려하기 때문에 초대하는 거야.’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가지 않겠어.’

만일 당신이 분명하고 참을성 있게 그리고 끈질기게 당신의 뜻을 반복하고, 그가 당신을 토론에 끌어들이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는 마침내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유감이지만,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이나 바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Q: 불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불법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A: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교에 관해 물어 볼 경우에 말입니다. 그들이 묻지 않아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말이나 행동으로 흥미가 없음을 알게 해준다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바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불법에 관해서 알려 줄 때, 설교보다는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사려 깊고, 친절하고, 관대하고, 인내심 있고, 올곧으며, 정직한 모습으로써 불법을 보여 주십시오. 불법이 당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빛나게 하십시오. 만약 당신과 나, 우리들 모두가 불법을 철저히 인지하고, 완벽하게 실천하고,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면, 우리는 우리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14. 부처님 말씀

계를 통해서 청정하게 되는 것이 통찰지이고 통찰지에 의해서 청정하게 되는 것이 계입니다. 계가 있는 곳에 통찰지가 있고 통찰지가 있는 곳에 계가 있습니다. 계를 가진 자에게 통찰지가 있고 통찰지를 가진 자에게 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계와 통찰지를 제일로 한다고 일컫습니다. (디가 니까야, D.4.소나단다경)

마음이 그들에 앞서가고, 마음이 그들의 주인이며, 마음에 의해서 모든 행위는 지어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에게는 반드시 행복이 뒤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물체를 떠나지 않듯이. (법구경, Dhp.2)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경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꿰뚫어 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숫타니파타, Sn.148)

거대한 대양이 오직 한 가지 맛 소금의 맛인 것처럼, 불법 또한 한 가지 맛 자유의 맛이다. (자설경, Ud.56)

남의 허물은 눈에 쉽게 띄지만 자기 허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남의 허물을 것처럼 까불어 버리고 자기의 허물은 감추려 든다. 마치 도박꾼이 불리한 패를 감추듯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끊임없이 찾아 항상 그들을 경멸하는 자는 번뇌가 더욱 늘어나리니, 번뇌를 소멸키 어려운 자. (법구경, Dh.252-3)

정원사가 꽃밭에서 꽃을 주워 꽃 둘레를 만들 듯, 사람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착한 행위를 많이 해야만 한다. (법구경, Dh.53)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게 말할 때에는 적절한 때에 말하거나 혹은 적절한 때에 말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게 말할 때에는 사실대로 말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게 말할 때에는 부드럽게 말하거나 혹은 거칠게 말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게 말할 때에는 원인에 근거하여 말하거나 혹은 원인과 무관하게 말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게 말할 때에는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혹은 안으로 증오를 품고 말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하여야 한다. '내 마음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악담을 내뱉지 않으리라. 이로움과 함께 연민을 가지고 머물리라.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증오를 품지 않으리라.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리라. 그리고 그 사람을 자애의 마음을 내는 대상으로 삼아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의 없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리라.'라고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하여야 한다. (맛지마 니까야, M.21.톱의 비유경)

때때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한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남자와 여자의 행복은 그들의 기대와는 어긋난다. (본생담, Ja.VI,43)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가진 자는 현명한 자라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셋인가? 잘못을 범하고 잘못을 범했다고 보는 것과,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 잘못을 범했다고 인정하고 법답게 고치는 것과,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 다른 자가 지적할 때 법답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세 가지 법을 가진 자는 현명한 자라 알아야 한다. (앙굿따라 니까야, A3:4.잘못경)

일체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착한 공덕을 힘껏 행하며, 자기의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법구경, Dh.p.183)

이것을 깊은 강물과 얇은 개울물의 비유로 알라. 바닥이 얇은 개울물은 소리 내어 흐르지만,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법이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하다. 어리석은 자는 물이 반쯤 찬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다. (숫타니파타, Sn.720-1)

비구들이여, 만일 양쪽에 날이 달린 톱으로 도둑이나 첩자가 사지를 마디마다 잘라 낸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 마음을 더럽힌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맛지마 니까야, M.21.톱의 비유경)

비구들이여,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반복하고, 닦고, 많이 공부 짓고, 수례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으면 열한 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무엇이 열하나인가? 편안하게 잠들고, 편안하게 깨어나고, 악몽을 꾸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비인간들이 좋아하고, 신들이 보호하고, 불이나 독이나 무기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마음이 쉽게 삼매에 들고, 안색이 맑고, 매하지 않은 채 죽고, 더 높은 경지를 통찰하지 못하더라도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 (앙굿따라 니까야, A11:16.자애경)

만약 착한 사람들이 싸우게 되면 그들은 재빨리 화해하고 오랫동안 유지해온 유대를 형성할 것이다. 금이 가고 깨어진 쓸모없는 단지와 같이,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화해를 구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런 가르침을 고려하는 사람은,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는 훌륭한 벗이다. 다른 사람의 모욕을 견디는 그는 화해시키는 자가 되기에 적합하다. (본생담, Ja.III,38)

맛이 있건 없건, 많건 적건 간에 사람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도 먹을 수 있

다. 실로 사랑은 최상의 맛이다. (본생담, Ja.III,145)

말을 솜씨 있게 잘하고 인물이 잘났기 때문에 친절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요. 시기, 인색, 교활로서는 더욱이나 아니다. 시기, 인색, 교활을 완전히 꺾고 뿌리 뽑았으며 번뇌를 제거한 사람을 가리켜 친절과 존경을 받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라 부른다. (법구경, Dhp.262-3)

스스로 길들여지지 않았고 바르게 인도되지 않았고 [오염원들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길들이고 인도하고 [오염원들을] 완전히 꺼지게 하리라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하다. 쫓다여, 그러나 스스로 길들여졌고 인도되었고 [오염원들이] 완전히 꺼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길들이고 인도하고 [오염원들을] 완전히 꺼지게 하리라는 것은 가능하다. (맛지마 니까야, M.8.지워 없앰 경)

만족은 으뜸가는 재산이다. (법구경, Dhp.204)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남들이 나를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하더라도 거기서 적대감을 가져서는 안되고 기분 나빠해서도 안되고 마음으로 싫어해서도 안된다. 비구들이여, 남들이 나를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한다고 해서 만일 그대들이 거기에 자극받아서 분노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것은 그대들에게 장애가 된다. 비구들이여, 남들이 나를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한다고 해서 그대들이 거기에 자극받아서 분노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대들은 남들이 말을 잘했는지 말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 수 있겠는가? 알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남들이 나를 비방하거나 법을 비방하거나 승가를 비방한다면 거기서 그대들은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는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비구들이여, 남들이 나를 칭송하거나 법을 칭송하거나 승가를 칭송하더라도 거기서 그대들은 즐거워해서도 안 되고 기뻐해서도 안 되며 의기양양해서도 안 된다. 비구들이여, 남들이 나를 칭송하고 법을 칭송하고 승가를 칭송한다고 해서 만일 그대들이 거기에 자극받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의기양양하게 되면 그것은 그대들에게 장애가 된다. 비구들이여, 남들이 나를 칭송하거나 법을 칭송하거나 승가를 칭송하면 그대들은 거기서 사실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옳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다.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라고. (디가 니까야, D.1:1,5.범망경)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요소를 갖춘 말은 좋은 말이어서 잘못 말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이 없고 지자들에게 비난받지 않는다. 무엇이 다섯인가? 바른 시기에 하는 말, 진실한 말, 온화한 말, 이익을 주는 말, 자애로운 마음으로 하는 말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요소를 갖춘 말은 좋은 말이어서 잘못 말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이 없고 지자들에게 비난받지 않는다. (앙굿따라 니까야, A5:198.말경)

지혜로운 사람은 담마를 잘 새겨들어 깊고 맑고 고요한 호수와도 같이 자기 마음을 정숙하게 한다. (법구경, Dhp.82)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은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고 해서, 우리의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추측이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추론에 의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깔라마들이여, 그대는 참으로 스스로가 ‘이러한 법들은 유익한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비난받지 않을 것이며, 이런 법들은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법들을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이익과 행복이 있게 된다.’고 알게 되면, 그것들을 구족하여 머물러라. (앙굿따라 니까야, A3:65.깔라마경)

한때, 부처님께서 다투고 있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동물들이 서로에게 정중하고 경의를 표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울장, Vin.II,162)

비구들이여, 재산을 잃는 것은 작은 것이다. 잃는 것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통찰지를 잃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재산이 불어나는 것은 작은 것이다. 불어나는 것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은 통찰지가 불어나는 것이다. (앙굿따라 니까야, A1:8.선우등의 품)

비록 많은 경을 독송할지라도 게을러 수행하지 않으면 마치 남의 목장의 소를 세는 목동과 같나니 수행자로서의 아무런 이익이 없다. (법구경, Dhp.19-20)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발하라. (숫타니파타. Sn.149)

비구들이여, 책망하는 비구가 남을 책망하고자 하면 이와 같이 반조해야 한다. ‘나는 몸의 행실이 청정한가, 아닌가? 나는 훼손되지 않고 흠 없는 청정한 몸의 행실을 구족했는가, 아닌가? 이러한 법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라고.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몸의 행실이 청정하지 못하고, 훼손되지 않고 흠 없는 청정한 몸의 행실을 구족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존자부터 먼저 몸에 대해 공부하십시오.’라고 한다. 참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비구들이여, 책망하는 비구가 남을 책망하고자 하면 이와 같이 반조해야 한다. ‘나는 말의행실이 청정한가, 아닌가? 나는 훼손되지 않고 흠 없는 청정한 말의 행실을 구족했는가, 아닌가? 이러한 법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라고.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말의 행실이 청정하지 못하고, 훼손되지 않고 흠 없는 청정한 말의 행실을 구족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존자부터 먼저 말에 대해 공부하십시오.’라고 한다. 참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다시 비구들이여, 책망하는 비구가 남을 책망하고자 하면 이와 같이 반조해야 한다. ‘나는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 원한 없는 자애의 마음을 확립했는가, 아닌가? 이러한 법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라고.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 원한 없는 자애의 마음을 확립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존자부터 먼저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 원한 없는 자애의 마음을 확립하십시오’라고 한다. 참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앙굿따라 니까야, A10:44.꾸시나라경)

불법은 그것을 실천하는 이를 보호한다. 마치 큰 우산이 비가 올 때 보호해주는 것처럼. (본생담, Ja.IV,55)

비구들이여, 아침에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중생들은 좋은 아침을 맞는다. 비구들이여, 낮에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중생들은 좋은 낮을 맞는다. 비구들이여, 저녁에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중생들은 좋은 저녁을 맞는다. (앙굿따라 니까야, A3:150.오전경)

팍구나여, 그러므로 어느 누가 그대를 손으로 때리고 흠덩이를 던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칼을 내리치더라도 그대는 세속적인 의욕이나 세속적인 사유를 제거해야 한다. 팍구나여, 그럴 때는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내 마음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얹으리라. 악담을 내뱉지 얹으리라. 이로움과 함께 연민을 가지고 머물리라.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며 증오를 품지 얹으리라.’ 팍구나여, 이와 같이 그대는 공부지어야 한다. (맞지마 니까야, M.21.툽의 비유경)

농부는 물길을 내어 물을 대고, 화살깃 대는 사람은 굽은 화살을 바르게 펴며, 목수는 나무를 다루어 수레바퀴를 만들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법구경, Dh.p.80)

아누룻다여, 그러면 그대들은 어떻게 사이좋게 화합하여 다투지 않고 물과 우유가 잘 섞이듯이 서로를 우정 어린 눈으로 보면서 머무는가? 세존이시여, 여기서 저희들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러한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머문다는 것은 참으로 나에게 이익이고, 참으로 나에게 축복이다.’라고. 그래서 제게는 이 스님들이 눈앞에 있건 없건 항상 그들에 대해 자애로운 몸의 업을 유지하고, 제게는 이 스님들이 눈앞에 있건 없건 항상 그들에 대해 자애로운 말의 업을 유지하고, 제게는 이 스님들이 눈앞에 있건 없건 항상 그들에 대해 자애로운 마음의 업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제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의 마음은 제쳐두고 이 스님들의 마음을 따라야겠다.’라고.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제 자신의 마음은 제쳐두고 이 스님들의 마음을 따릅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저희는 몸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지마 니까야, M.128.오염원경)

다툽을 위험으로 조화를 평화로 알아차리면서, 화합과 상냥한 마음속에 머물러라.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소행장경, Cp.3,15,13)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남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를 닦지 않는 사람, 남의 이익을 위해서 도를 닦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도를 닦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도를 닦지만 남의 이익을 위해서는 도를 닦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이익과 남의 이익 둘 다를 위해서 도를 닦는 사람이다...이 가운데 자신의 이익과 남의 이익 둘 다를 위해서 도를 닦는 사람은 네 사람 가운데 으뜸이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높고 가장 탁월하다. (앙굿따라 니까야, A4:95.화장터 나무토막경)

이와 같이 비구들이 부처와 법과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이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일어나지 얹으리라 (쌍웃따 니까야, S11:3.깃발

경)

분노를 정복하는 것은 겸손과 자비, 사악을 정복하는 것은 선과 지혜, 인색을 정복하는 것은 관용과 베풀, 거짓말을 정복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법구경, Dhp.223)

비구들이여, 여섯 가지 기억해야 할 법들이 있으니, 이것은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한다. 무엇이 여섯 가지인가? 여기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이 면전에 있건 없건 그들에 대해 몸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한다. 이것이 기억해야 할 법이니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한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이 면전에 있건 없건 그들에 대해 말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한다. 이것도 기억해야 할 법이니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한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이 면전에 있건 없건 그들에 대해 마음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한다. 이것도 기억해야 할 법이니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한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법답게 얻은 법다운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비록 발우 안에 담긴 것일지라도 그렇게 얻은 것들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수용하고, 계를 잘 지키는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사용한다. 이것도 기억해야 할 법이니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한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이 면전에 있건 없건 훼손되지 않았고 뚫어지지 않았고 오점이 없고 얼룩이 없고 벗어나게 하고 지자들이 찬탄하고 들러붙지 않고 삼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계들을 그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동등하게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도 기억해야 할 법이니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한다.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럽고, 출리로 인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에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에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바른) 견해가 있으니, 여기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이 면전에 있건 없건, 그 (바른) 견해를 그들과 함께 동등하게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도 기억해야 할 법이니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한다. (맛지마 니까야, M.48.코삼비 경)

고귀한 불법을 사랑하며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수한 사람은, 항상 평화롭고 친절하며 침착하고 차분하다. 그들은 세상을 두루 적절하게 나아간다. (본생담, Ja.III,442)

누구든지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비록 그들이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들은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들끼리 하는 행위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쌍웃따 니까야, S3:4.사랑하는 자 경)

이것이 내게 무슨 영향을 미치라하여 작은 공덕 짓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조금씩 쌓아 큰 공덕을 만든다. 마치 방울씩 떨어진 물이 큰 독을 채우듯이. (법구경, Dhp.122)

어떤 스님이 설사병으로 괴로워하며 자신의 배설물 위에 쓰러져 누워 있을 때였다. 부처님과 아난다 스님이 그 처소를 방문해서 아픈 스님이 누워 있는 곳에 다가갔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었다.

‘비구여, 무엇이 문제인가?’

‘설사병입니다. 부처님’

‘너를 돌봐줄 이가 아무도 없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비구들은 너를 돌봐주지 않는 것인가?’

‘저는 그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아난다 스님에게 말했다. ‘가서 물을 가져 오너라, 우리가 이 비구를 씻겨 주어야겠다.’ 그래서 아난다 스님은 물을 가져왔고 부처님은 아난다 스님이 그 비구를 모두 씻겨 내는 동안 계속 지켜보셨다. 그리고 비구의 머리와 발을 들어 옮겨서 침상에 놓였다. 후에 부처님은 비구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물었다.

‘왜 너희들은 저 아픈 비구를 돌보지 않았는가?’

‘그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너희에게는 너희를 돌봐줄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다. 만약 너희들이 서로를 돌보지 않는다면, 누가 돌봐줄 것인가? 나를 돌봐주려는 자는 아픈 사람을 돌봐주도록 하라.’ (율장, Vin.IV,301)

수족을 구하기 위해 재산을 포기하거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족을 희생하려는 사람은, 진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재산, 수족, 생명, 그밖에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본생담, Ja.V,500)

사람은 대개 강한 사람의 무례한 말은 두려움 때문에 참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무례한 말은 논쟁을 피하기 위해 참는다. 그러나 아랫사람으로부터의 무례함을 참을성 있게 견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내이다. 선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서 어떻게 자신보다 높은지, 동등한지 혹은 아래인지 말할 수 있는가? 사실 때때로 나쁜 품성들이 선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가려진다.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건 간에 인내심을 가져라. (본생담, Ja.V,141-2)

모든 보시 가운데 담마의 보시가 으뜸이요. (법구경, Dh.p.354)

그는 남들의 이익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이득인 양 마음이 흡족해하고 기뻐한다. (쌍웃따 니까야, S16:3.달의 비유경)

아난다여, 그런데 비구 승가는 나에게 대해서 무엇을 더 바라는가? 아난다여, 나는 안과 밖이 없이 법을 설하였다. 아난다여, 여래가 가르친 법들에는 스승의 주먹과 같은 것이 따로 없다. (디가 니까야, D.16:2,25.대반열반경)

내가 가고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디가 니까야, D.16:6,1.대반열반경)

비구들이여, 비구가 자주자주 자신의 파멸에 대해서 숙고해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비구가 자주자주 남의 파멸에 대해서 숙고해 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자주자주 자신의 번영에 대해서 숙고해 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비구가 자주자주 남의 번영에 대해서 숙고해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앙굿따라 니까야, A8:7.데와닷따경)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 한결같이 헌신적인 사랑스런 친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존중과 보살핌으로 돕는다. 그래서 바로 '선하다'고 불리운다. (본생담, Ja.V,146)

이 세상에서도 그는 즐거워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그는 즐거워한다. 이처럼 착한 행동을 한 사람은 양쪽 세상 모두에서 즐거워한다. 그가 더욱 즐거운 것은 즐거움을 누리며 자기 선행을 보고 되새기는 것이다. (법구경, Dhp.16)

비구들이여, 불선법을 버려라. 비구들이여, 그것은 버릴 수 있다. 비구들이여, 만약 불선법을 버릴 수 없다면 ‘불선법을 버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불선법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불선법을 버려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불선법을 버려 손해와 고통으로 인도한다면 ‘불선법을 버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불선법을 버려 이익과 행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불선법을 버려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선법을 닦아라. 비구들이여, 선법은 닦을 수 있다. 비구들이여, 만약 선법을 닦을 수 없다면 ‘선법을 닦아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선법을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선법을 닦아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선법을 닦아 손해와 고통으로 인도한다면 ‘선법을 닦아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선법을 닦아 이익과 행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선법을 닦아라.’고 말한다. (앙굿따라 니까야, A2:2.불선법경)

누구나 매를 두려워하고 누구나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다. 자기의 처지를 바꿔 생각한다면 어찌 남을 때리고 죽일 수 있으랴. (법구경, Dhp.130)

사람들이 앉거나 눕도록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의 가지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친구의 배신자, 악행을 저지른 자가 되는 것이다. (천궁사, Vv.9)

착한 것은 멀리서도 나타나 보인다. 마치 히말라야 흰 산이 그러하듯이. 사악한 것은 가까이서도 볼 수 없다. 마치 어두운 밤에 날아가는 화살을 볼 수 없듯이. (법구경, Dhp.304)

라훌라야,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울의 용도는 무엇인가? 비추어보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라훌라야, 그와 같이 지속적으로 반조하면서 몸의 행위를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반조하면서 말의 행위를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반조하면서 마음의 행위를 해야 한다. (맛지마 니까야, M.61. 암발랏티까에서 라훌라를 교계한 경)

활처럼 구부러지고 대나무처럼 유연하라. 그러면 당신은 어느 누구와도 다투지 않을

것이다. (본생담, Ja.VI,295)

강가 같은 큰 강들은 모두 동쪽으로 흐르고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으로 들어간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비구가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팔정도)를 닦고,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많이 공부 지으면 그는 열반으로 흐르고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으로 들어간다. (쌍웃따 니까야, S45:127.동쪽으로 흐름경)

진실로, 선한 사람들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며 항상 감사해 한다. (울장, Vin.IV,55)

그는 나를 욕했고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굴복시켰고 내 것을 빼앗았다고 하여 증오를 품고 있으면 증오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는 나를 욕했고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굴복시켰고, 내 것을 빼앗았다고 해도 증오를 품지 않으면 증오는 없어진다. 실로 이 세상에서 원한으로서는 원한을 풀 수 없는 것, 오직 용서로서만 그것을 풀 수 있나니. (법구경, Dhp.3-5)

청정한 자에게는 나날이 팍구나의 보름날이요 포살일이니, 마음이 청정하고 몸의 행위 등이 깨끗한 자는 항상 서계를 구족한 것이라네. (맛지마 니까야, M.7.옷감의 비유경)

비록 그가 화려한 장관의 옷을 입었어도 그의 마음이 고요하고 번뇌로부터 벗어났고 감정을 다스려 도의 관찰을 이루었고 청정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들에 대한 원한심을 버렸다면 그는 브라흐마나이자 사마나이자 빅쿠이다. (법구경, Dhp.142)

아난다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인간을 평가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말라.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자는 파멸한다. (앙굿따라 니까야, A6:44.미가살라경)

자칼의 으르렁거림과 새들의 노래는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인간이 말한 것을 풀이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 당신은 아마도 이전에 어떤 사람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를 진실한 친척, 친구, 혹은 동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그는 적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들은 항상 가까이에 있고,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멀리 있다. 믿음직한 친구는 설령 당신이 대양 저 너

머에 있다고 해도 여전히 믿음직하다. 사악한 마음의 친구는 설령 그가 바다를 건너 있을 지라도 여전히 사악하다. (본생담, Ja.IV, 218)

| 약어

A, Aṅguttara Nikāya; Cp, Cariyā Piṭaka; D, Dīgha Nikāya; Dhp, Dhammapada, Ja, Jātaka; M, Majjhima Nikāya; S, Saṃyutta Nikāya; Sn, Suttanipāta; Ud, Udāna; Vin, Vinaya Piṭaka; Vv, Vimanavatthu.

| 경전출처

- 디가니까야, 맛지마니까야, 쌍웃따니까야, 앙굿따라니까야 - 각목스님· 대림스님, 초기 불전 연구원.
- 법구경 - 거해스님, 샘이 깊은 물.
- 숫타니파타 - 법정스님, 이레.

| 저자

담미까 스님은 1951년 호주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18세에 불교로 개종했다. 1973년에 그는 스님이 될 작정으로 아시아에 가서 태국, 라오스, 버마, 인도 등지를 두루 여행 했다. 그 후 3년 동안 인도를 여행하면서 요가와 명상을 배웠고, 아나가 리까 담마팔라(Anagarika Dharmapala)의 마지막 제자인 마띠웰라 상가라뜨나 (Matiwella Sangharatna) 스님 밑에서 마침내 비구계를 받았다. 1976년에 스리랑 카의 위디알라야(Sri Lanka Vidyalyaya)에서 팔리를 공부하고, 후에 캔디(Kandy)에 있는 닐람베 명상센터(Nilambe Meditation Centre)의 공동 창시자이자 지도자가 되었다. 그 이후로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스리랑카와 싱가포르에서 보내고 있다. 담미까 스님은 불교와 관련된 25권 이상의 책과 다수의 글을 써왔다. 그의 책 'GOOD QUESTION GOOD ANSWER'는 20여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지금은 현대 불교 대중문학의 작은 고전으로 간주된다. 그는 또한 대중적인 법문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2000년에 베를린에서 있었던 ‘21세기 유럽 불자회의(European Buddhist Millennium Conference)’에서 남방불교를 대표했다. 불교 철학과 명상 외에도 담미까 스님은 불교의 성지와 성지순례의 전통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인도 역사와 예술, 식물학도 그의 또 다른 관심사들이다.

담미까 스님이 알려주는 불교에 더 관심이 있다면, www.buddhisma2z.com을 방문해보라.